

GS E&C
INTEGRATED REPORT
2016더
큰 세상을
만들다

03159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그랑서울
Tel. 02-2154-1114
www.gsenc.com



ABOUT THIS REPORT

G4-3, G4-5, G4-18, G4-28, G4-29, G4-30, G4-31, G4-32, G4-33

이 보고서는 GS건설이 발간하는 여섯 번째 통합보고서입니다.

GS건설은 경영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안정적인이고 견고한 재무성과가
우리사회와 지구환경을 위한 가치와 함께 추구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건설회사가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영진의 철학은
GS건설의 비전인 "창조적 열정으로 세상의 가치를 건설하여 신뢰받는
BEST PARTNER & FIRST COMPANY"를 통해 경영활동에서 실현
되고 있습니다.

GS건설은 매년 통합보고서를 발간하여 회사의 재무정보와 비재무적
정보를 이해관계자 여러분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국내를 비롯한 해외 전 사업장과 주요 공급망에 관한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포함하며, 보고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입니다.

재무성과 산정기준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한 연결
기준이며,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비재무 정보는 GS건설이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DJSI)에 보고한
데이터와 평가결과를 연계하여 보고함으로써 정보공개의 책임수준을
향상하고자 하였습니다.

보고 기준은 GRI G4 가이드라인의 핵심적 부합 방법을 적용하였고
수록된 정보는 지속가능경영 전문기관의 신뢰성 검증을 거쳤습니다.

이 보고서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전략기획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S건설

03159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그랑서울
Tel. 02-2154-1114
E-mail sewoong.kim@gsenc.com
www.gsenc.com

GS건설이 창조하는 새로운 삶의 가치

GS건설은 ‘고객과 함께 내일을 꿈꾸며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창조한다’는 경영이념으로 GS건설의 이해관계자 및 우리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Stakeholder Engagement

GS건설에서 고객은 한 가족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항상 가까이에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Sustainability Trends

GS건설은 시대를 앞서 갑니다.
열린 마음으로 시대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발전적 변화를 주도합니다.

Value for Life

GS건설은 삶의 가치 향상을 선도합니다.
생활을 더욱 편하고 즐겁게 하는 유·무형의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 공동체 모두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Value for Tomorrow

GS건설은 내일의 꿈을 열어갑니다.
GS건설은 일과 사람의 가능성을 키우고 가꾸며,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오늘보다 밝고 힘찬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CONTENTS

CEO 인사말	02
2016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04
GS건설 가치창출 프로세스	06
GS건설 회사소개	08

GS E&C SUSTAINABILITY STRATEGIES	
지속가능경영 전략	18
이해관계자 참여 & 중대성평가	20

GS E&C VALUE CREATION FOR 6 CAPITALS	
재무자본 가치창출	24
산업자본 가치창출	28
지식자본 가치창출	34
환경자본 가치창출	38
인적자본 가치창출	42
사회·관계자본 가치창출	50

GS E&C TRANSPARENT FUNDAMENTALS	
거버넌스	58
윤리경영	60
리스크관리	62

ANNEXES	
데이터 센터	64
GRI G4/ISO 26000	68
UNGC Advanced Level	71
제3자 검증의견서	72
단체가입현황 및 수상내역	74

CEO 인사말 64-1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GS건설에 대한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GS건설은 2016년 해외 발주시장의 경색 등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은 기업경영이 경제성장을 전망과 같은 외부환경보다 임직원이 만드는 기업문화, 일하는 방식, 의식의 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따라 그 향배가 나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GS건설은 'Sustainable Global Company'로의 도약'을 2020년 비전목표로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재무적 가치, 환경적 가치,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GS건설은 괄목할 만한 재무적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플랜트, 전력, 인프라, 건축·주택부문의 사업성장으로 2015년 창사 이래 매출 10조원 첫 돌파 이후 2016년에는 매출 11조 356억원을 기록하여 다시 한번 매출 10조원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해외사업은 유가 하락의 악조건에서도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종로 단계로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여 재무리스크를 대폭 감소 시키며 수익정상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국내사업은 2015년에 이은 주택사업의 활황으로 괄목할 만한 실적향상을 보이며 전사 경영실적을 견인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둘째, GS건설은 환경정책과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Eco Global Top Tier를 지향하며,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7.1% 감축을 목표로 전 지구적 과제인 기후변화 완화에 전사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위원회를 통해 전사적인 에너지 절감 활동을 시행하고, 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개발된 친환경 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린 콘크리트 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량은 45,000톤에 달하며 환경기술을 현장에 적용한 기술실용화 성과는 173.5억원으로 20%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셋째, GS건설은 사람을 위한 가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전문성 개발 지원, 협력사 동반성장 협의체 구성, 유연한 근무환경 제공 등 사람중심의 가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의 공부방' 사업은 200호점을 완공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으며, 특히 2016년 11월 국내 건설회사 최초로 싱가포르 지역에 안전혁신학교를 설립하여 협력회사 및 동종업계에도 교육의 기회를 개방함으로써 건설업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인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GS건설은 글로벌 수준의 사회적 책임이행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국제기관으로부터 회사의 지속가능경영을 자발적으로 평가 받고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 DJSI Asia-Pacific 지수에 7년 연속 편입함으로써 경영시스템을 평가 받는 계기로 삼았으며, 환경부문과 같이 산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영역들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영역은 적극적으로 개선 및 소통해 나갈 방침입니다.

금년도 여섯 번째 통합보고서 발간을 맞아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7월

GS건설 주식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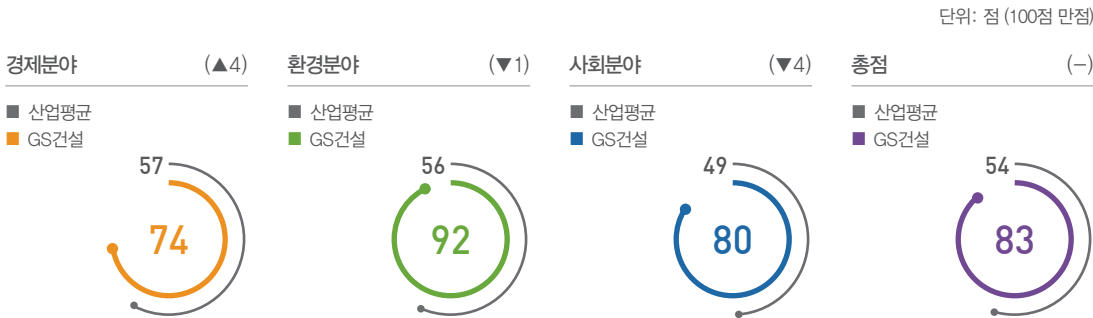
대표이사 사장

임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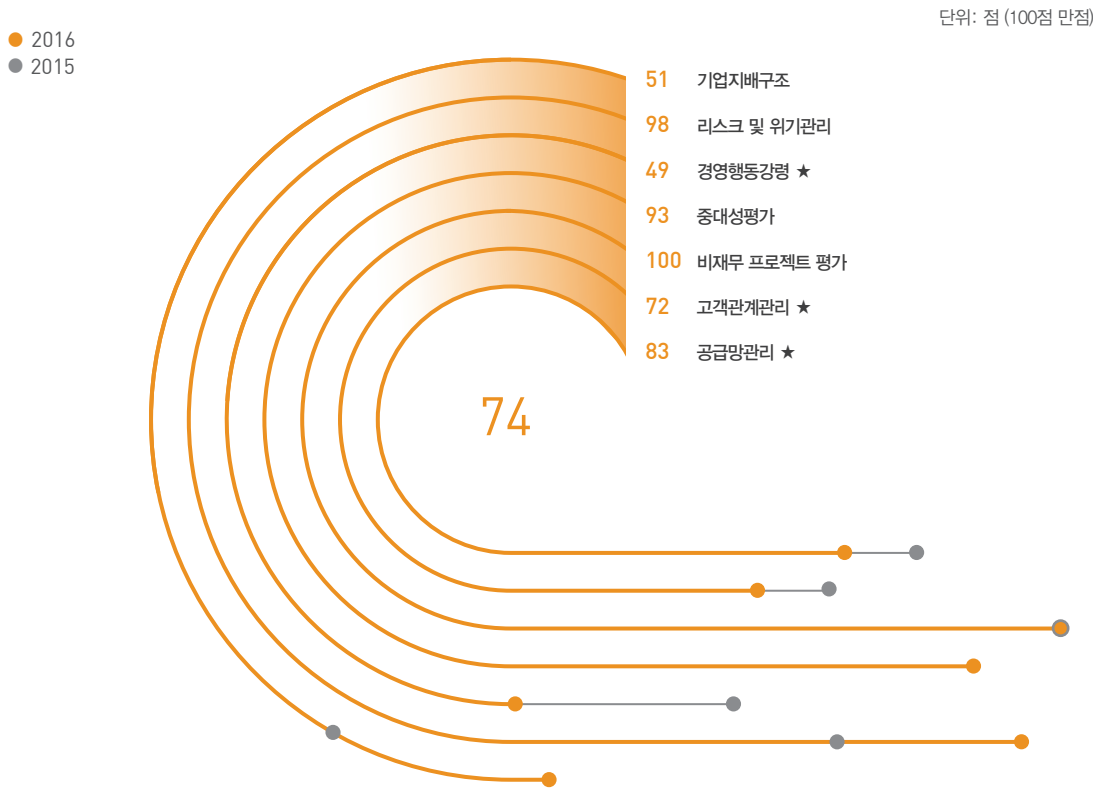
2016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글로벌 선진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 실행을 위해 매년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GS건설은 DJSI평가를 회사의 지속가능경영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고 평가결과를 시스템 정비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 최초 대응 이래 DJSI 아시아퍼시픽 지수에 7년 연속 편입되었으며, 지속가능경영 실행 수준은 2016년 32개 글로벌 건설회사 중 6위로 경제, 환경, 사회 전 영역에서 모두 산업평균을 상회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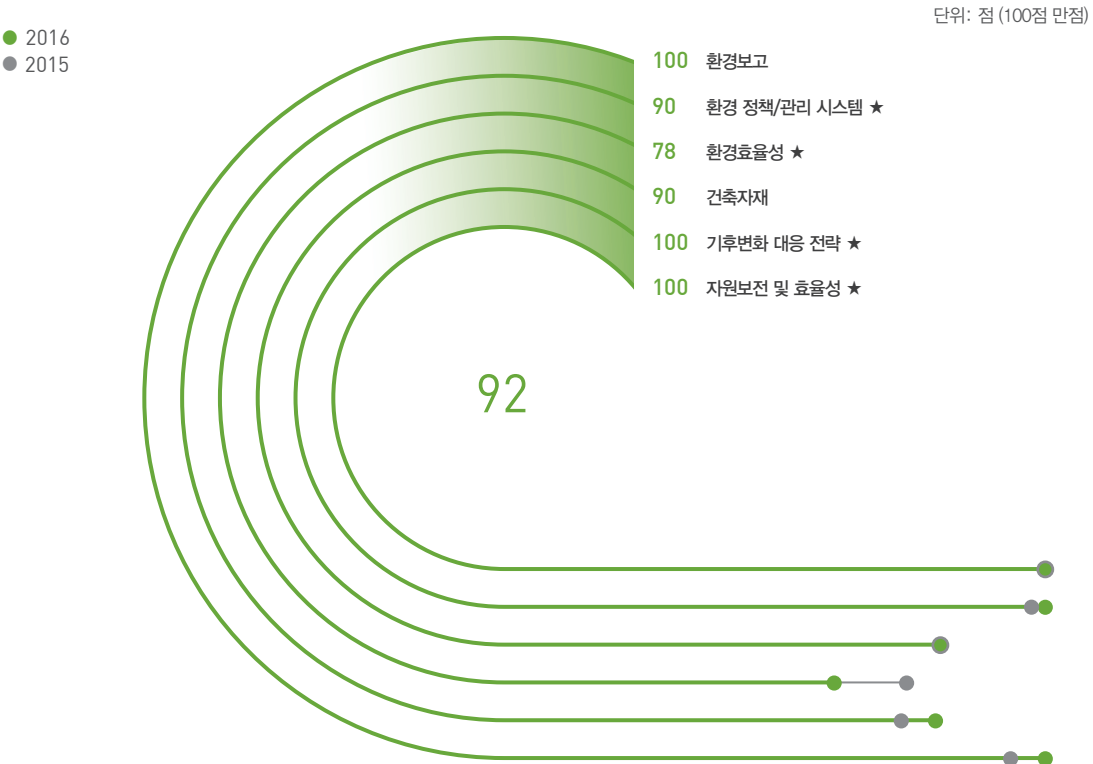
2016년 DJSI 평가 결과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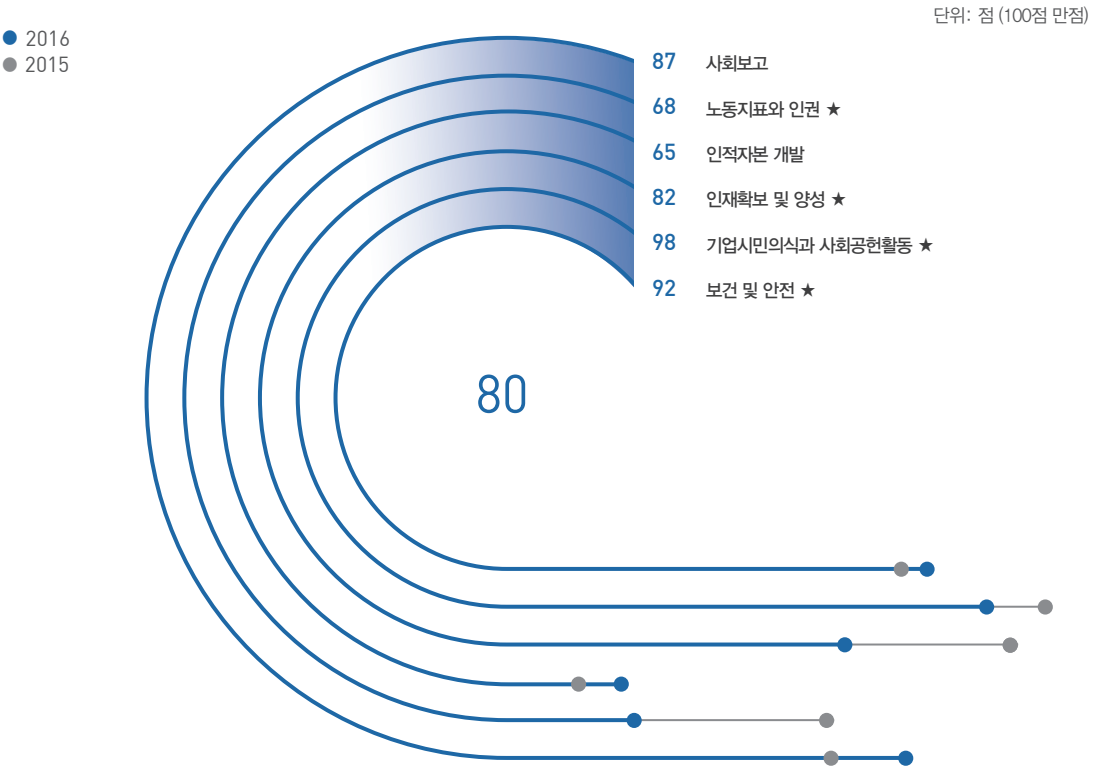
경제분야 지속가능경영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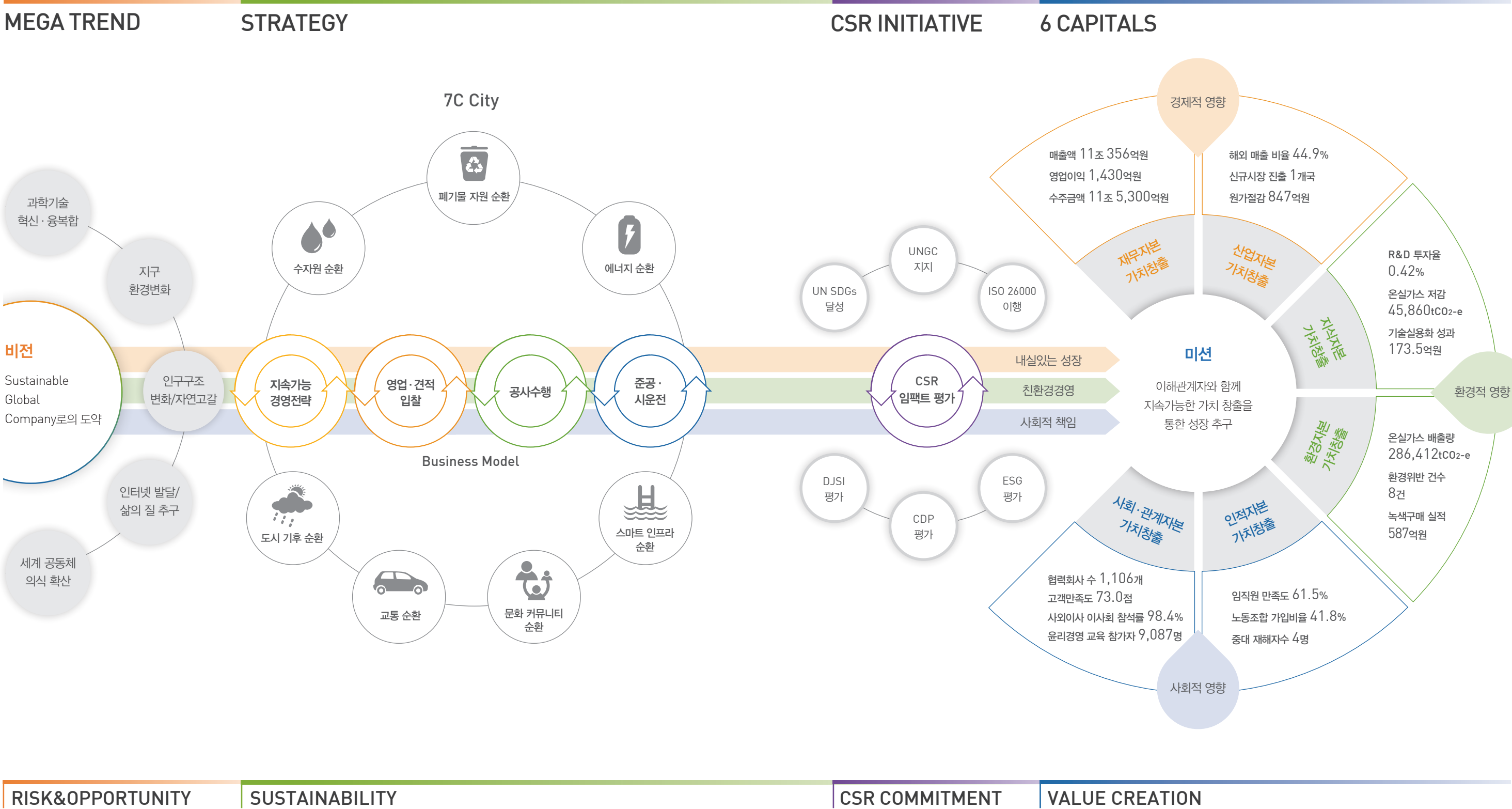
환경분야 지속가능경영 평가 결과



사회분야 지속가능경영 평가 결과



★는 GS건설 중대성평가 시 도출된 중요이슈



GS건설 회사소개

GS건설은 1969년 12월 상호명 ‘락희개발’로 최초 설립되었으며, 2005년 3월 현재의 상호인 GS건설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지난 47년 동안 지켜온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플랜트, 발전, 환경, 인프라, 건축, 주택 등 각 주요 사업분야에서 최상의 파트너, 최고의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

2016년 12월 기준

G4-3, G4-5, G4-7, G4-8, G4-9

기업명	GS건설(GS E&C)	총 자산	13조 3,766억원
기업 유형	외부감시법인, 유가증권 시장상장법인	매출액	11조 356억원
설립일	1969년 12월 19일	수주액	11조 5,300억원
임직원	6,210명	주요 사업장 수	총 213개 사업장(국내 160, 해외 53개)

*주요 사업장 수에 설계, 토목 부분은 제외 됨

주주구성

2016년 12월 기준

대주주 현황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비율(%)
허창수	7,728,763	10.89
허진수	3,913,082	5.51
허정수	2,996,634	4.22
허명수	2,443,576	3.44
허태수	1,529,727	2.16
우리사주조합	2,710,462	3.82

주식소유 비율

순위	구분	지분율
1	국내기관 및 개인	53.7%
2	특수관계인	29.0%
3	외국인	15.3%
4	자사주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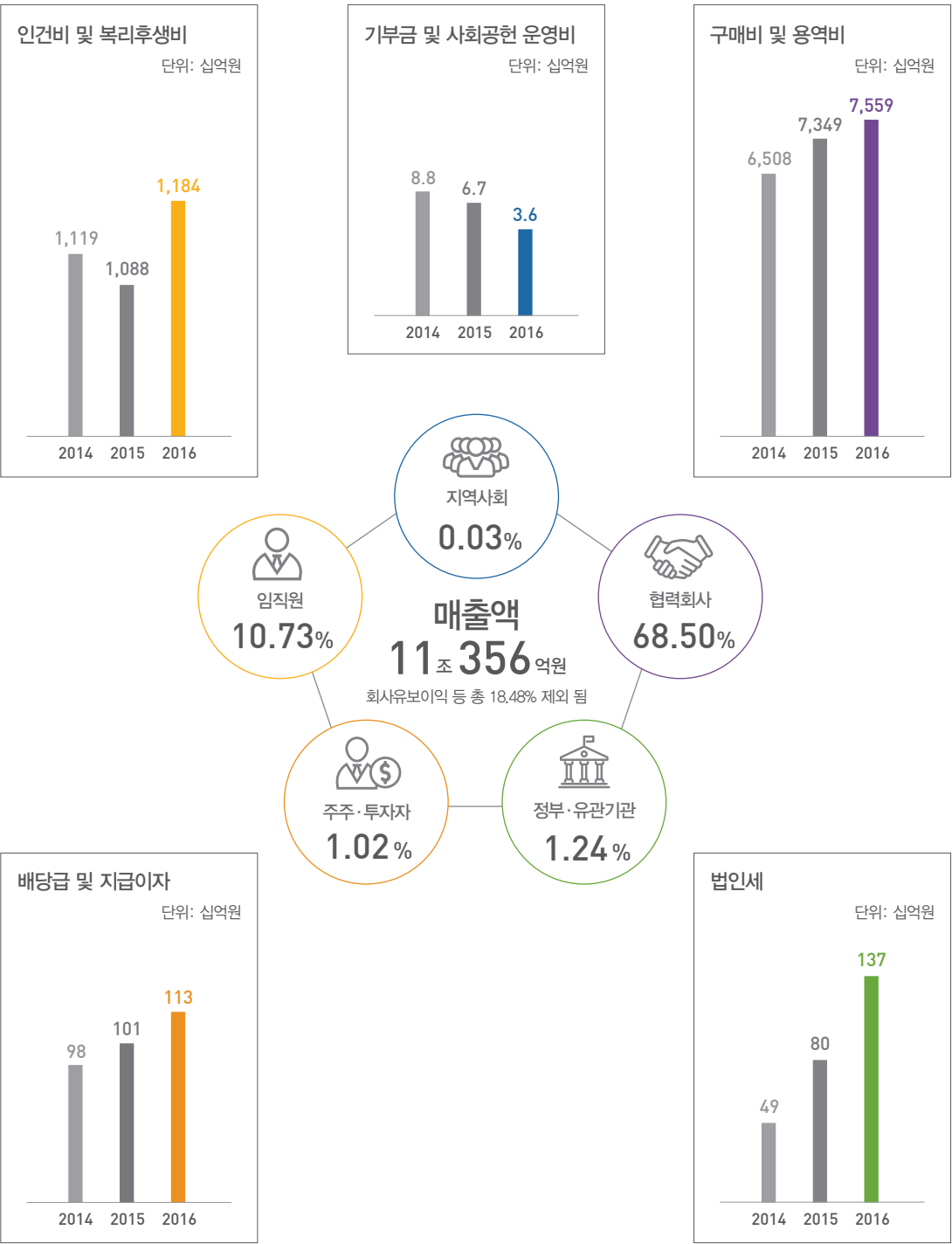
조직구성

CEO 임병용			
건축 부문	건축수행본부	조달본부	CSO
우무현 _부사장	안채종 _전무	송기준 _상무	사업개발실
인프라 부문	인프라수행본부	재무본부	인재개발실
이상기 _전무	고병우 _전무	김태진 _전무(CFO)	법무실
플랜트 부문	Global Eng. 본부		홍보·업무실
김형선 _부사장	임종민 _상무		사업지원실
환경사업본부	남아시아 Eng. Center		Compliance실
전력 부문	기술본부		
임기문 _전무	박동섭 _상무		

*GS건설은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2016년 7월 1일 현행 Compliance 담당 조직을 실급으로 확대 개편 하였습니다.

경제적 가치창출과 가치배분 G4-EC1

GS건설은 2016년 11조 35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창출된 경제적 가치는 임직원, 주주·투자자, 협력회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절히 배분 되었습니다. 경제적 가치배분 금액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 정부유관기관 성과분배는 법인세, 세금과공과, 잡손실 중 과징금의 합산 값임

GS건설 비즈니스 모델

GS건설은 건축·주택, 인프라, 플랜트, 전력 부문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축·주택 부문



사업동향 및 전망

건축사업은 공공·민간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최종 목적물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업무시설, 생산시설 등 모든 건축 상품에 대한 영업 및 시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IT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인터넷 데이터 센터(IDC), 대형 의료시설, 관광호텔 등의 발주가 확대되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주택사업은 소비자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경기부양의 선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시책 발효 및 장기간 신규 주택 공급이 정체되어 있던 시장 상황 등에 힘입어 주택시장은 점진적으로 호전되고 있습니다.

사업영역

주거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병원, 문화·레저·스포츠, 크린룸·생산시설, 물류·리모델링, 국내 개발 사업, 해외 개발 사업

건축·주택 부문 사업성과



 인프라 부문



사업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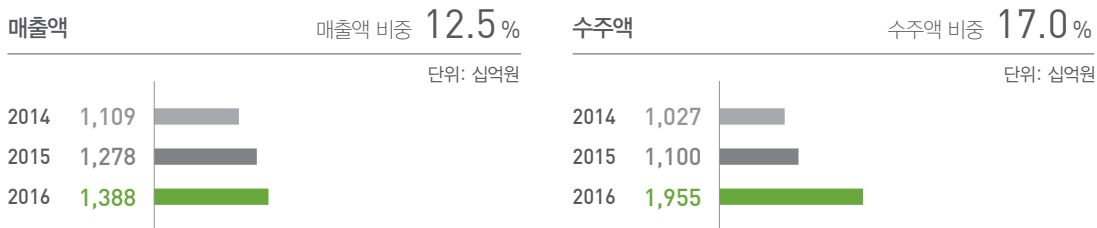
인프라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자연의 터전에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는 산업입니다. GS건설은 도로, 교량, 철도, Metro, 공항, 수자원, 항만, 산업단지, 지하 저장시설 등의 사회 인프라 건설을 수행하였으며, 민간자본을 이용한 대규모 인프라 건설 및 운영에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내 인프라시장은 경기 회복제고를 위해 부족한 정부재원 대신 민간투자 부문의 의존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BTL(Build Transfer Lease) 민간제안 제도화 이후 민간의 제안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 인프라시장은 아시아지역 도시화 및 교통/운송관련 인프라 건설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발주될 것으로 보이며, 개도국 재정 부족으로 투자 동반형 프로젝트 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영역

도로·교량·철도, 지하공간, 수자원·항만

인프라 부문 사업성과





사업동향 및 전망

플랜트산업은 정유, 가스, 석유화학 및 환경(폐기물 처리, 수처리)에 사용되는 설비를 기초 설계, 상세 설계, 자재구매 및 시공 단계를 거쳐 최종 완공시키는 것은 물론 사업성조사,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까지 결합할 수 있는 복합산업입니다. 최근 플랜트시장은 2014년 유가급락 이후 그간 지연되었던 초대형 프로젝트가 발주되는 등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면서 시장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GS건설은 과거 치열한 수주 경쟁의 산물인 저마진 프로젝트의 손실이 일부 반영되어 재무적인 손실이 지속되고 있지만, 향후 플랜트 핵심공정에 있어서 세계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합리적인 마진확보와 함께 매출액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영역

정유, 가스, 석유화학 플랜트, 환경 사업

플랜트 부문 사업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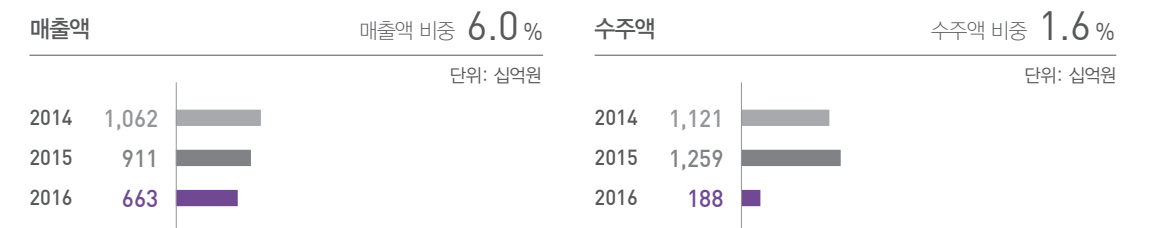
사업동향 및 전망

발전 및 전력제어사업은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설비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GS건설은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인 청정에너지 사업과 고효율 친환경화력 발전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사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내시장은 전력예비율 증가로 공공 발주가 축소되고 있으나, 발전관계사 사업은 효율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수요 증가로 일정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해외시장은 저유가 여파와 세계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인한 발주 축소 및 중국, 스페인 EPC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사의 발전사업 확대로 레드오션화 되는 상황속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영역

화력·원자력·신재생, 전력제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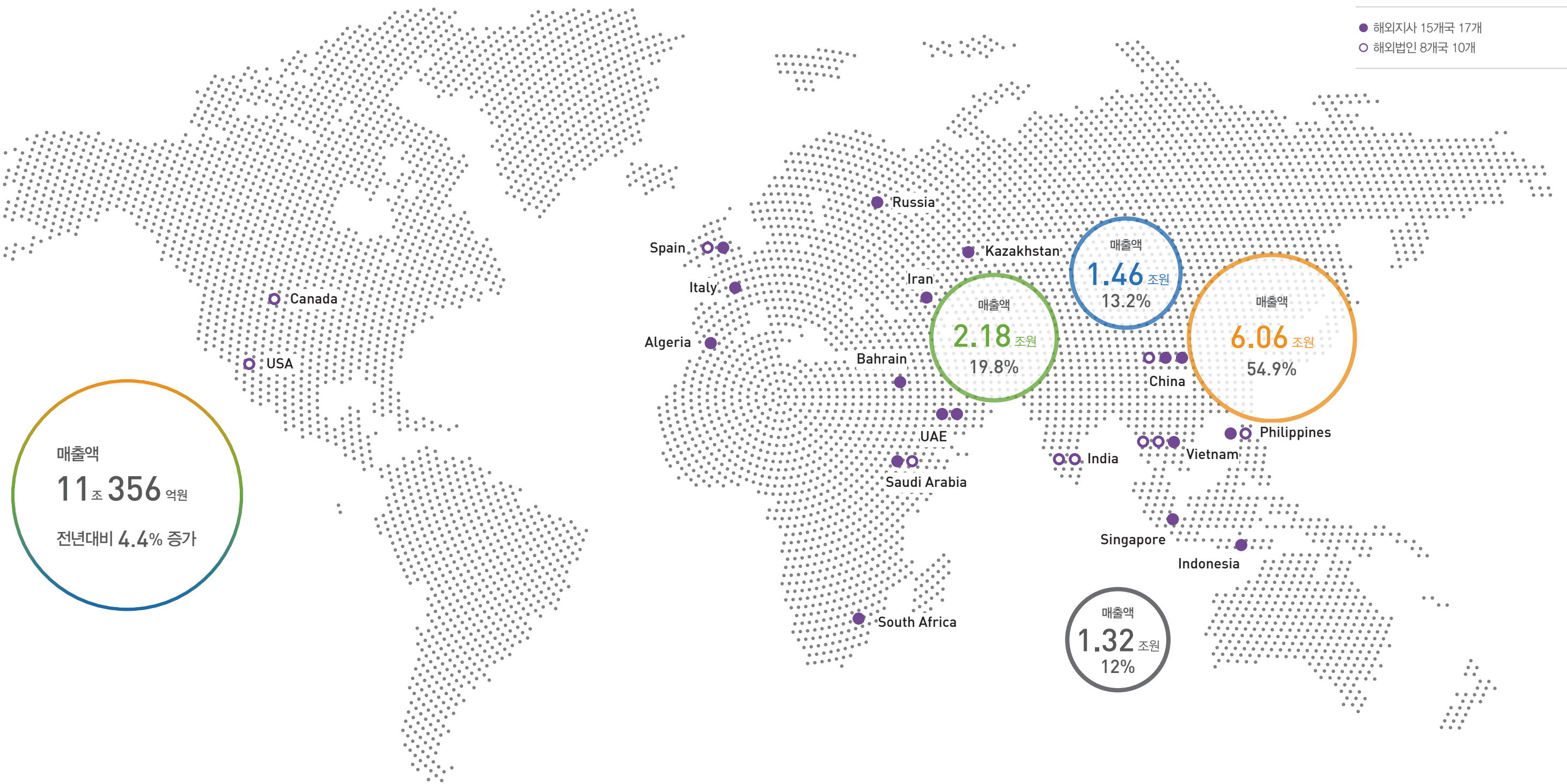
전력 부문 사업성과



기타 부문 _리조트사업, 임대사업 등 매출액의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속의 GS건설 G4-6, G4-13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들, 두려움 없이 전진하는 사람들, 그들에 의해 새로움은 창조됩니다.
GS건설은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더 넓은 세상을 만들고 더 깊은 감동을 만들어갑니다.



* GS건설은 국내 자회사 9개를 비롯하여, 해외법인 10개, 해외지사 17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GS E&C SUSTAINABILITY STRATEGIES

새로움을
만들어가는 힘!
Best Partner, First Company
GS건설입니다

18 지속가능경영 전략

20 이해관계자 참여 & 중대성평가

지속가능경영 전략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가 GS건설의 경영이념이자 가치체계의 근간입니다. GS건설은 고객들에게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Sustainable Global Company로의 도약’을 전사 VISION 2020 GOAL로 제정하고 경제, 사회, 환경 범주의 가치를 창출하는 성과지표를 통해 전략을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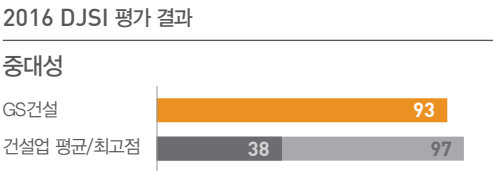
지속가능경영 전략 체계



지속가능경영 주요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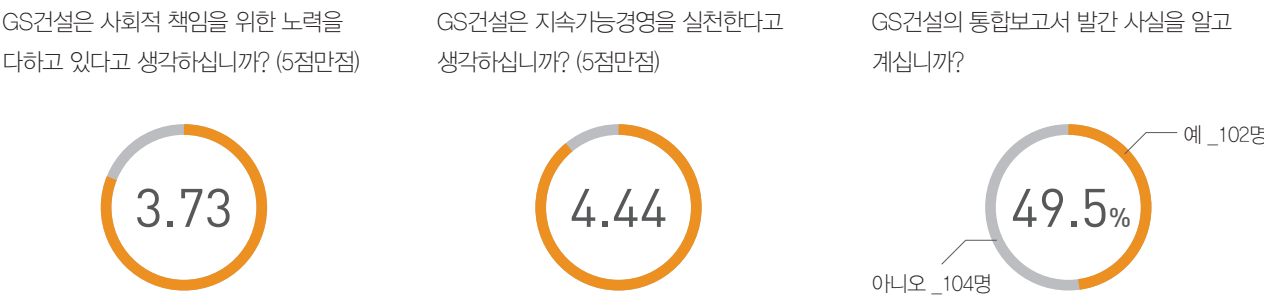
6 Capitals	성과지표	단위	2014	2015	2016
재무자본 가치창출	매출액	조원	9,488	10,573	11,036
	영업이익	십억원	51	122	143
	수주금액	조원	11,216	13,384	11,530
	신용등급	등급	A+	A	A
산업자본 가치창출	해외 매출 비율	퍼센트	58.1	56.7	44.9
	국내 전 건설사 대비 해외 신규수주 비율	퍼센트	9.0	12.0	7.4
	신규시장 진출 국가	국	4	3	1
	협업체 구성을 통한 원가절감	억원	333.6	730.8	847.0
지식자본 가치창출	탄소저감 효과(그린콘크리트 개발)	tCO2-e	7,029	62,649	48,405
	연구개발비용	억원	484	449	484
	R&D 투자율	%	0.51	0.42	0.42
	기술실용화 성과	억원	108.4	142.8	173.5
환경자본 가치창출	온실가스 배출량	tCO2-e	248,276	283,499	286,412
	물 사용량	m ³	2,793,820	2,256,554	3,506,709
	폐기물 배출량	톤	253,217	290,285	293,037
	환경법규 위반건수	건	7	8	8
	녹색구매 비용	억원	246	320	587
	고효율 에너지 빌딩 비율	퍼센트	38	31	36
인적자본 가치창출	임직원 만족도	점	69.3	62.2	61.5
	1인당 교육시간	시간	86	94	55
	노동조합 가입비율	퍼센트	38.8	39.9	41.8
	중대 재해자 수	명	3	3	4
	육아휴직 복귀율	퍼센트	91	97	97
사회·관계자본 가치창출	협력회사 수	개	914	956	1,106
	윤리경영 교육참여 인원 교육시간	명	7,923	8,020	9,087
	사회공헌금액	억원	80	67	36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점	72.8	72.9	73.0

이해관계자 참여 & 중대성평가



기업이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가치창출 요인과 중요이슈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이해관계자들이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마인드를 갖도록 장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GS건설은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지속가능경영 인식을 알아보고, 기업의 가치 창출 요인을 찾아내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GS건설 이해관계자 지속가능경영 인식



이해관계자 기대사항

GS건설은 매년 7대 이해관계자 그룹의 기대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6년 중대성 평가 시 접수된 206명의 유효응답을 기반으로 파악된 기대사항은 GS건설의 경영활동에 반영되었으며 그 결과는 2017년 통합보고서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임직원	· 해외 사회공헌 활동 강화 · 신규사업 투자 강화	 협력회사	· 다양한 기업에 공정한 기회 제공 · 협력회사와의 중장기적 상생정책 실천
 언론·미디어	· 건설현장 기술비, 사업비 투명성 강화	 기업·일반고객	· 부정당 입찰업체 제제기준 강화 · 사망사고 근절 ·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
 정부·유관기관	· 해외 저가 수주 지양	 지역사회	· 일자리 창출 · 중·장기 관점의 사회공헌 수행
 주주·투자자	· 재무 성과 창출 및 투명성 강화		

중대성 평가 G4-18, G4-19, G4-20, G4-21

중대성 평가를 위해 미디어 분석, 벤치마킹분석 등 지속가능경영 TF(Task Force)팀의 관련성 평가를 통해 34개의 이슈를 도출하고, 이해관계자 참여설문을 통해 최종보고 이슈를 확정하였습니다. 중대성 평가 과정에서 208명을 대상으로 경제, 환경, 사회 등의 분야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였고, 보고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에서는 TF팀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신뢰와 의견 대응성을 높이하고자 하였습니다.



GS E&C 6 Capital	중대이슈	GRI 측면	UN SDGs 관련성
재무자본 가치창출	③	경제성과	
산업자본 가치창출	⑨	간접경제성과	
지식자본 가치창출	⑪	제품 및 서비스	 
환경자본 가치창출	② ⑦ ⑭	폐수 및 폐기물, 환경법규준수, 에너지	   
인적자본 가치창출	⑥ ⑧ ⑩ ⑫ ⑬ ⑰	시장지위, 산업안전보건, 다양성과 기회균등,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차별금지, 인권고충처리제도	  
사회·관계자본 가치창출	① ④ ⑤ ⑭ ⑮ ⑯ ⑰ ⑱ ⑲ ⑳	원주민 권리, 제품법규준수, 고객만족, 개인정보보호, 고객안전보건, 반부패,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경쟁저해행위, 사회법규준수	 

GS E&C VALUE CREATION FOR 6 CAPITALS

GS건설은
책임있는 기업경영으로 신뢰를 만들고
6대 주요자본에 대한 가치를
균형있게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 24 재무자본 가치창출
- 28 산업자본 가치창출
- 34 지식자본 가치창출
- 38 환경자본 가치창출
- 42 인적자본 가치창출
- 50 사회·관계자본 가치창출



재무자본 가치창출

GS건설



“성공적인 재무성과 창출을 바탕으로 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지속가능경영은 경영환경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해나가야 하며, 재무적으로 기업이 지속 가능 해야 환경·사회적으로도 지속가능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경제주체로서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수익성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 경영성과만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지속 가능하지 못한 길이 됩니다. GS건설은 재무적인 성공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 환경을 보호하는 기본전략을 끊임없이 추진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재무적 성과와 사회·환경적 성과를 아우르는 통합보고는 의미 있는 행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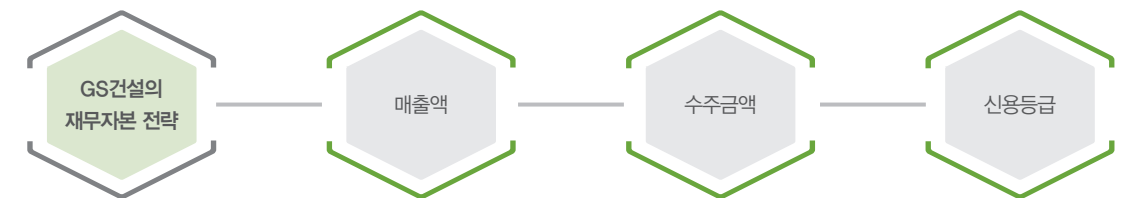
_GS건설 주인기 사외이사

재무자본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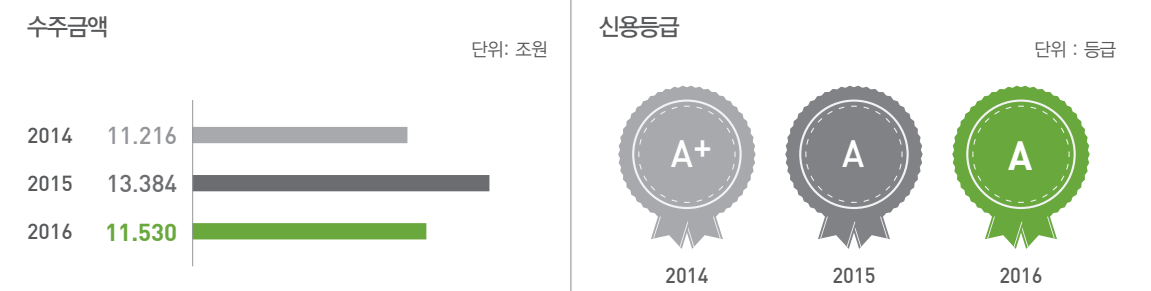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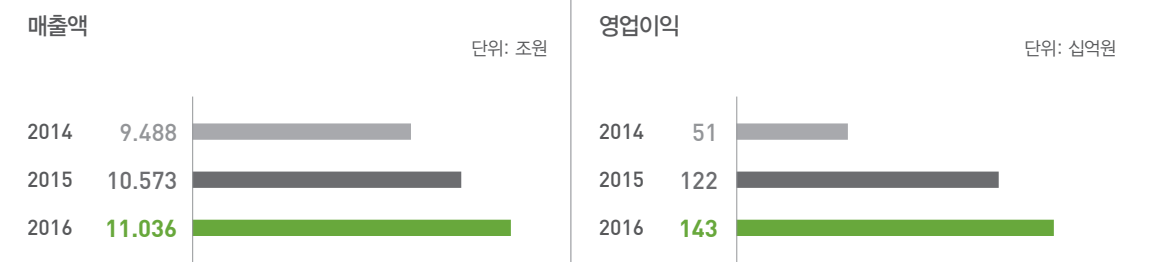
GS건설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수치들을 재무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매출액, 영업이익, 수주금액, 신용 등급 등을 통해 그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투자 및 세계무역이 위축되면서 재무자본 규모는 다소 감소세에 있습니다. 건설업은 해외에서 그간 지연되었던 초대형 프로젝트가 발주되는 등 유가하락으로 수주시장이 재개되었지만, 국내에서 비중이 높은 주택시장의 규모는 최근 2년에 비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GS건설의 접근법

GS건설은 2013년 대규모 영업이익 적자 이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실현하며 실적 턴어라 운드에 성공하였습니다. 국내 주택시장의 호조로 매출액은 증가하였으나, 해외 플랜트 부문의 발주 지연에 따른 수주 지연 으로 수주액은 감소하였습니다. 신용등급은 사업안정성 및 안정된 재무구조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재무실적의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신용등급의 변화는 없습니다.



주요 재무자본 성과



*출처: 한국기업평가

재무지표 현황 및 미래전망

2016 DJSI 평가 결과

경제 부문

GS건설	74
건설업 평균/최고점	57 / 85

GS건설은 3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며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 현안 프로젝트를 다수 종료하고, 나머지 프로젝트들도 대부분 종료단계로 진입시켜 해외 리스크를 크게 경감시켰습니다. 국내 주택시장의 호조로 매출액은 증가하였으나, 해외 플랜트 부문의 발주 지연에 따른 수주 지연으로 수주액은 감소하였으며 신용등급에서 변화는 없습니다.

매출액

2016년 매출현황

2016년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4.4% 상승하였습니다. 국내 주택 사업의 매출증가로 국내 매출은 전년대비 약 33% 증가하였으나 해외매출은 해외 플랜트 사업의 매출감소로 전년대비 17% 감소 하였습니다. 국내 매출비중은 55%이며 해외매출비중은 전체 매출의 약 45%를 차지하였습니다. 해외 매출의 약 73%는 플랜트 부문의 매출입니다. 부문별 매출 비중으로 볼 때, 건축부문이 전체 매출의 43.6%를 차지하고 있으며, 플랜트 부문 37.2%, 인프라 부문 12.5%, 전력부문 6%, 기타 0.6% 순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매출전망

매출은 전년 대비 약 11% 증가한 12조 2,50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익측면에서는 문제성 해외 사업장들이 종료되고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영업이익의 회복 기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세부현황 단위: 십억원				
	2014	2015	2016	2017(전망)
매출액	9,488	10,573	11,036	12,250
해외매출액	5,509	6,002	4,969	-
해외매출액(플랜트)	3,769	4,500	3,605	-

사업부문별 매출액 추이 단위: 십억원			
	2014	2015	2016
건축	2,812	3,311	4,814
인프라	1,086	1,266	1,383
플랜트	4,202	4,907	4,108
전력	1,062	911	663
기타	326	178	68

수주

2016년 현황

2016년 수주는 유가하락에 따른 해외 플랜트 부문의 발주 지연에 따른 수주 부진으로 주택 부문 수주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3.9% 감소한 11조 5,300억원의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매출은 플랜트와 주택 매출의 증가로 전년 대비 4.4% 증가한 11조 35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손익 측면에서 해외사업은 다소 부진하였으나, 국내 주택 사업의 활황으로 영업이익 1,430억, 세전이익 213억을 달성하였습니다.

2017년 전망

2017년도 GS건설 수주 목표는 전년도 수주 실적보다 다소 감소한 10조 9,000억원으로 성장성보다는 수익성을 우선으로 하는 내실화 전략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유가 기조에서 탈피하여 그간 지연되었던 일부 플랜트 프로젝트의 발주가 재계되는 등 전년 대비 나은 시장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택시장은 활황이었던 2015, 2016년과 비교해서는 기저효과로 인해 지표상 부진해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예전의 수준으로 회귀할 것으로 전망 하고 있습니다.

수주 세부 현황 단위: 십억원				
	2014	2015	2016	2017(전망)
신규수주	11,216	13,384	11,530	10,900
해외신규수주	6,902	2,994	2,088	3,851

신용등급

2016년 현황

한국기업평가는 GS건설의 제127회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2015년에 이어 A로 평가하였습니다. 시장지위, 다각화된 공종포트폴리오 등에 기반한 우수한 사업안정성과 비교적 안정된 재무구조를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조한 영업수익성과 더불어 실적 변동성이 높고, 큰 폭의 재무적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어 신용등급이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신용등급 주요 평정요인

사업 및 재무요인	다각화된 공종포트폴리오 보유 양호한 매출기반 확보 공공 및 해외부문의 낮은 채산성 지속 전망
	영업수익성 제한적 유상증자, 자산매각으로 양호한 재무구조
	유동성 분석 유동성 대응능력 우수
향후 전망	영업수익성 개선 전망되나 유동적 수준 단기적 큰 폭의 재무구조 개선 어려움
	기타 평가 요인 계열 내 중요한 사업적, 경제적 지위

2017년 전망

한국기업평가는 GS건설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Negative)으로 유지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영업수익성 개선이 전망되나 유동적인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지속된 가격상승과 공급물량 증가, 정부의 정책방향성 등을 감안할 때 주택시장은 둔화가 예상되나 중단기적으로 최근 분양한 주택물량의 기성이 본격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부문이 GS건설의 외형 성장 및 영업수익성 회복을 견인할 전망입니다. 다만 과중한 미청구공사 규모가 지연되고 있는 점은 실적개선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큰 폭의 재무구조 개선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분양이 개시된 주택 물량의 기성 본격화에 힘입어 영업현금 창출력 개선이 기대되는 동시에 최근 급격하게 증가한 주택물량은 운전자본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해외사업 등과 관련하여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시설투자가 발생하고 있는 점은 향후에도 현금 흐름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신용등급 추이 단위: 등급			
	2014	2015	2016
신용등급	A+	A	A
출처 _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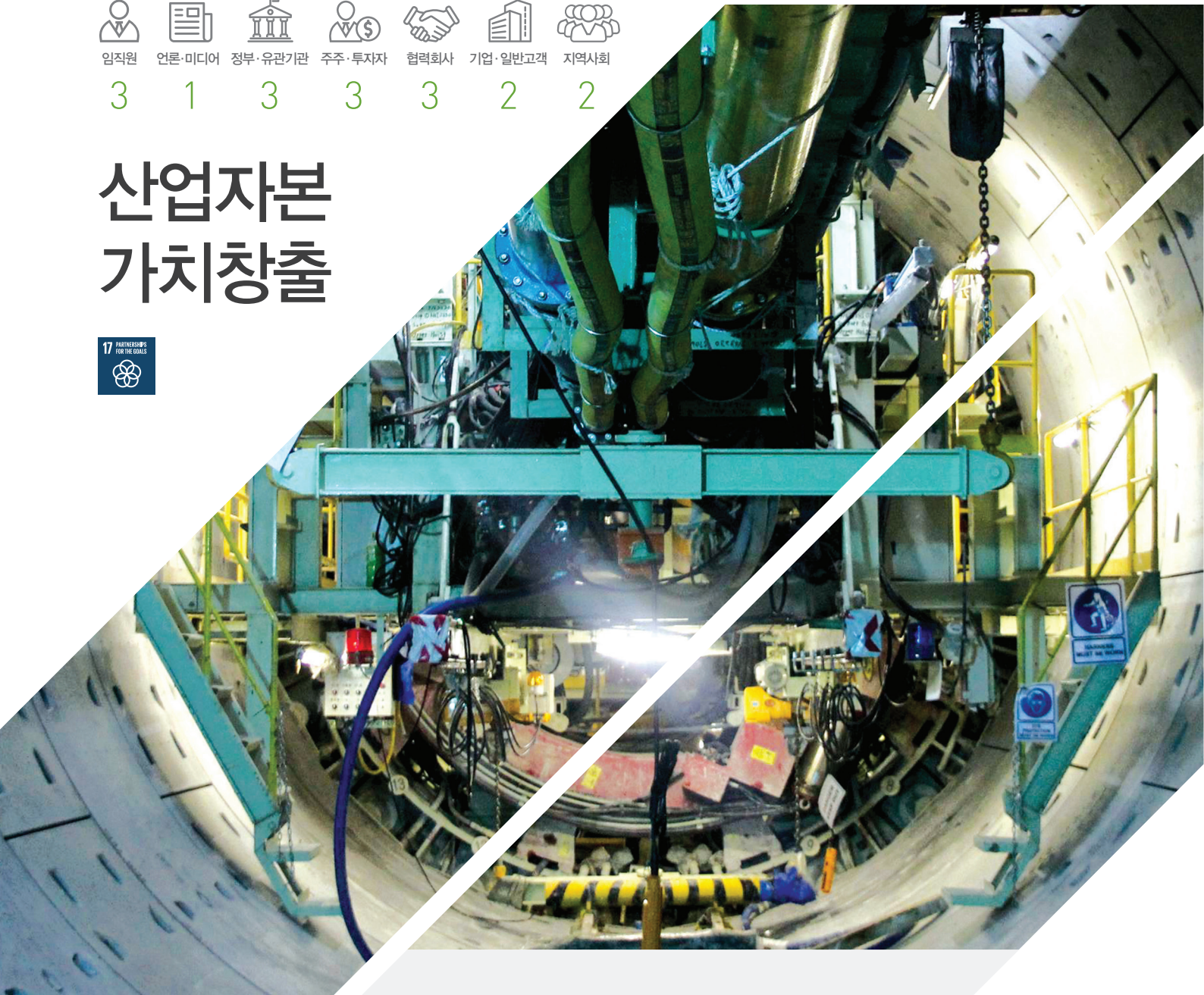
GS E&C Story

GS건설, 2년 연속 ‘연 매출 10조’ 돌파

GS건설이 2016년 연간 매출 11조원을 넘어서면서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연 매출 10조원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2016년 GS건설은 매출 11조 360억원, 영업이익 1,43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저유가 여파에 따른 중동시장 발주 감소로 목표했던 성과는 얻지 못했지만, 국내 주택분양 사업에 역량을 집중한 것이 매출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향후 국내 주택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된 재무성과를 위해 동남아, 아프리카 등에서 진행되는 해외 인프라 사업 수주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산업자본 가치창출



“해외 수주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뒀다”

건설사는 해외플랜트 사업을 비롯한 글로벌 수주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원가절감과 더불어 비재무적인 요소는 사업수주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GS건설은 프리콘사업 등의 원가절감 경쟁력과 더불어 비재무적인 부분에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막지역에 IT 장비를 제공하고, 보호소를 건축하는 등 지역사회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프로젝트시 안전·건강·환경요소들을 타협하지 않고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GS건설이 One Team, One Spirit의 정신을 발휘하여 글로벌 선진기업으로 정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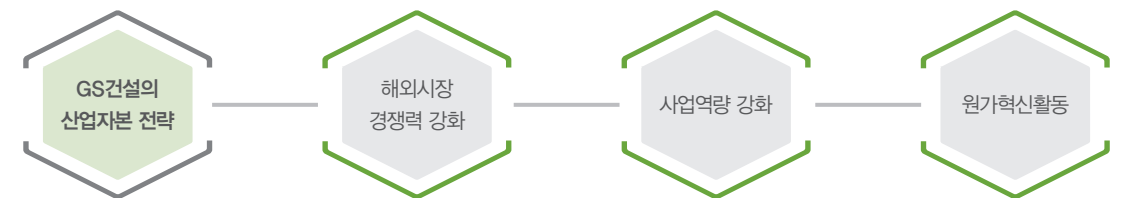
LPIC EPC3 프로젝트 발주사 PM, Ali Al Raisi

산업자본의 중요성

GS건설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을 산업자본으로 분류합니다.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장기화 기조 속에 대형선진사와 신흥 후발기업들의 시공물량 잠식으로 인해 수주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기업들은 자국내 건설시장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신성장동력 발굴·육성, 원가절감 등의 사업전략을 수립하고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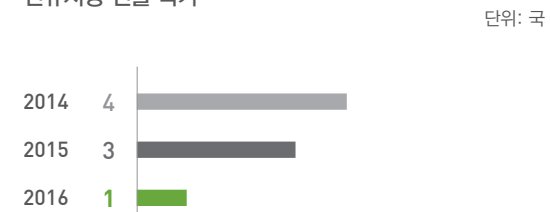
GS건설의 접근법

GS건설은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원가를 절감하고, 사업포트폴리오를 강화하여 내부적인 사업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사업영역 외에 신규사업 진출과 기존사업에서 파생되는 Seed사업의 역량을 갖추어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수주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량 프로젝트에 선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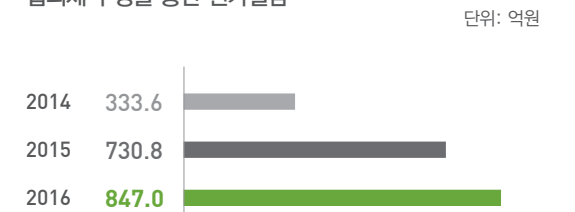


주요 산업자본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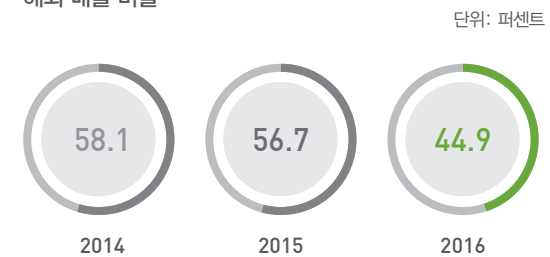
신규시장 진출 국가



협업체 구성을 통한 원가절감



해외 매출 비율



국내 전 건설사 대비 해외 신규수주 비율



*출처: 해외건설협회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후발기업의 저가 공세와 유가 하락 등에 따른 해외발주량 감소로 해외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GS건설은 수주경쟁력을 확보하고 사업 수행경쟁력을 강화하여 해외시장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열경쟁에 따른 저가수주가 경영 손실로 이어졌던 경험을 바탕으로 우량프로젝트를 선별적으로 수주하고 글로벌 수행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주경쟁력 강화

GS건설은 글로벌 수주 확률을 높이고 수익성 있는 수주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선별적 입찰 참여를 통해 이익 창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GS건설 해외사업 부분 중 강점을 보이는 해외 플랜트 부문의 발주 지연에 따른 부진으로 해외 수주매출 비중과 국내 전 건설사 대비 해외 신규수주 비율이 각각 18.1%, 7.4%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GS건설은 사업부문별 해외 수주경쟁력 강화 전략을 바탕으로 해외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사업부문별 수주경쟁력 강화 전략

건축	목표지역 영업경쟁력 강화 및 우량 발주처 중심의 선별적 입찰 참여
인프라	기존 주력 시장 및 신규시장 참여전략 재수립을 통한 당사 인프라 강점 공종 선별 참여
플랜트	환경 변화에 비탄력적인 프로젝트 및 경쟁력 있는 Refinery 및 Petrochemical 분야 입찰 참여강화
전력	발전사업_아시아·아프리카 중심의 사전영업활동 강화 전력제어사업_기존인프라를 활용하여 ODA사업 집중

사업부문별 해외 수주액

	단위: 십억원		
	2014	2015	2016
건축	425	144	592
인프라	644	606	1,339
플랜트	5,477	2,163	145
전력	356	81	12
총합	6,902	2,994	2,088

사업 수행경쟁력 강화

GS건설은 사업 수행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수행체계를 확대하고, 현장 실행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해외 프로젝트 설계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인도 델리·뭄바이 등에 설계법인을 개설하여 수행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현장 실행력 강화를 위해 영국 ARUP Group과 미국 DSI(Decision Sciences Institute)와의 기술교류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본사와 해외법인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고급인력을 총원하여 해외 프로젝트 현장의 실행력을 높였습니다. 또한 해외거점을 중심으로 담당 임원들을 전진 배치하고 공무와 구매조직도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싱가포르 등 거점지역에 재배치하였습니다. GS건설은 기술인력의 현장 전진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사업인력과 해외사업 인력간 원활한 전환을 위해 사내 학교를 운영하여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인력운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해외법인 현황

	단위: 개		
	2014	2015	2016
해외법인	14	14	10
해외지사	23	20	17
총합	37	34	27

사업역량 강화

GS건설은 토목과 건축, 주택신축판매, 보수유지관리, 해외종합건설업, 기술용역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업실적은 각 사업부문별 시장의 수요와 공급 등의 경기변동과 장기계약 수행 실적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GS건설은 사업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재편하고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재구축하는 등 내실을 다지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성장동력 확보

GS건설은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사업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LNG액화, 에탄 크래커(Ethan Cracker)단지, 석탄화력발전 등 주요사업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사업의 역량 수준과 시장 매력도를 고려한 신성장 후보 공종을 발굴하여 World Class 공종으로 투자 및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 시공 위주의 성장모델에서 벗어나 투자, 개발, 건설, 운영을 총괄하는 Developer형 사업개발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강점이 있는 Developer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주기기사와 전략적 제휴로 사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지역을 중심으로 수주 가능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사업진출

신공법에 대한 연구개발 성과를 프로젝트에 접목시켜 기술장벽 구축이 가능한 기술지향 공종을 육성하는 방식을 통해 국내외 사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먼저 GS건설은 주력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Full Potential” 달성 전략을 수립하고 운영적 자원 투자를 지속하였습니다. 사업부분별로 전략적 자원투자, 운영적 자원투자, Seed 투자 등 3가지 주요 투자전략을 통해 중장기적 기회를 탐색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고부가가치화 사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핵심기술을 보유한 전담조직 운영 및 해외 선진사들과의 제휴를 통해 중동 주요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사업포트폴리오 전략

신성장사업	· LNG 액화 · Ethan Cracker
디벨로퍼형 사업	· 발전 IPP · 환경 Concession · 주택임대사업
핵심 기반상품	· 정유·가스·발전플랜트 · 교통·운송 인프라 · 건축·주택
기술형 고부가가치 상품	· 특수장대교량 · 대심도 지하교통망 · 항만

시장다각화

GS건설은 아프리카, CIS, 중남미 권역의 차별화된 네트워크 전개 전략을 통해 신시장 개척 및 시장 다각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아프리카 보츠와나에 첫 진출하여 5억 6,511만달러 규모의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순환유동충보일러(CFB) 설비가 장착된 300MW급 석탄발전소 5, 6호기를 모루폴레 석탄광산 갱도 입구에 추가 건설하는 사업으로 설계에서 조달과 시공까지 46개월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츠와나는 대부분의 전력을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이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의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6년 신규시장 대표 현장

보츠와나	Morupule B Phase II coal fired Power Project. 2016.12~
------	---

원가혁신활동

건설업에서 원가절감은 사업 수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GS건설은 사업부문별 실행 과제를 통해 이루어지던 기존의 원가혁신방식에서 진일보하여 2014년 이후 현장과 본사 지원조직들이 원가절감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협의체는 개별 프로젝트 중심의 맞춤형 원가혁신활동을 전개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원가절감협의체를 통해 67개 현장에서 847억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원가혁신활동

선제적 원가관리를 위해 프로젝트 착공 이전 단계부터 원가상승 리스크 요소를 파악해 제거하고 기존 VE(Value Engineering)사례에서 발견된 개선사항을 적용하여 원가혁신의 기회를 발굴하였습니다. 초기현장일수록 VE, 설계오류 수정 등의 원가절감 기회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 신규현장에 선제적 원가관리와 원가혁신 협의체를 의무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착공 후에는 현장과 유관부서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예산을 재점검하고 원가절감 아이디어를 발굴해 적용하는 등 손익개선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수행 단계별로 12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매월 성과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원가혁신 수행프로세스

- 1 집중 원가절감 대상 현장 선정
- 2 원가혁신협의체별 원가절감계획 수립
- 3 원가혁신협의체 Big Room Meeting
- 4 최종 원가절감 계획 수립
- 5 계획대비 진행사항 관리

2016 DJSI 평가 결과

비재무 프로젝트 평가

GS건설	100
건설업 평균/최고점	62 / 100

2016 원가혁신 주요활동 및 성과

EPC 리스크 선행관리(3개 현장)	해외 EPC 프로젝트현장 Risk 선제적발굴 및 모니터링 현장 수행점검 실시
설계 오류검토 수행 (6개 현장)	착공 이전 설계 오류 도출 착공 설계 표준화 및 시공 Check List 반영 검토 토건부문 신규 개설 모든 현장 적용
주택 설계경쟁력 강화 (24개 현장)	“주택 건축심의 → 사업승인 → 상세설계” 각 단계별 설계검토 참여 조직별 성과관리를 통한 동기부여 강화
착공현장 리스크관리 (16개 현장)	건축/인프라 착공협의체를 통한 프로젝트 초기 공정계획 혁신 공기단축, 낭비요인 제거, 리스크 선제 제거
원가절감 실행협의체 (67개 현장)	실행협의체 수행을 통한 원가절감 목표달성 기능 강화 건축/인프라/전력/환경/EPC전분야 프로젝트 대상 적용
업무 프로세스 혁신	건축 전기/설비 혁신과제 수행 총 원가절감액: 117억원

임팩트 평가

건설프로젝트의 경제, 사회, 환경적 편익을 분석·평가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중요한 활동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투자수익률(SROI), 사회책임투자(SRI) 등 비즈니스 프로그램의 경제, 환경, 사회적 영향 분석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GS건설은 주요 임팩트 평가의 일환으로 프로젝트 착공 전 사업의 경제, 환경, 사회적 편익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임팩트 평가 수행

임팩트 평가 프로세스

GS건설은 기준시점을 바탕으로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추정하여 이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임팩트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가기간은 투자사업에 대한 적절한 설계기간 및 자원조달, 건설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업노선의 완공시기를 기준으로 30년을 평가대상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임팩트평가 단계

1	분석기준수립	· 평가기간 · 할인율 · 분석범위
2	분석방향수립	· 편익/비용 비율 · 순 현재가치 · 내부수익률
3	편익 산출	· 교통부분절감 · 통행시간비용 · 교통사고비용 · 대기오염비용 절감 · 소음피해비용
4	비용 산출	· 사업비 산정 · 운영비 산정
5	총경제성분석	· 편익 및 비용 종합 · 경제성 분석 종합
6	민감도분석	· 할인율 별 편익 분석

임팩트 평가 사례

옥산오창고속도로

GS건설은 충북 청원군 옥산면에서 오창읍을 잇는 옥산오창고속도로 건설 사업 진행에 앞서 임팩트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12.1km에 이르는 고속도로를 통해 청주·오창 방면에서 천안·아산 방면으로 이동할 경우 1시간 이상 걸리던 통행시간이 30분대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GS건설은 30년간의 비용 및 편익을 분석한 결과 경제, 환경적 비용이 발생하였지만 사회적 편익이 높게 나타나 약 5,722억원의 긍정적 임팩트를 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옥산오창고속도로 임팩트 평가 결과

	경제	환경	사회	총합
임팩트	[3,657.1]	[278.1]	9,101.2	5,722.2
할인율 적용	[2,433.7]		2,757.1	323.4

*할인율 : 임팩트를 기준연도의 불변가격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5.5%를 적용 하였음

만덕센텀 대심도 사업

GS건설은 부산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하 30~50m를 지나는 대심도 건설 사업 진행에 앞서 임팩트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만덕센텀 지하차도 건설은 만성 교통체증 구간인 만덕대로와 총렬대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길이 8.92km 왕복 4차로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GS건설은 30년간의 비용 및 편익을 분석한 결과, 경제적 비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사회적 편익이 높아 약 9,694억원의 긍정적 임팩트를 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덕센텀 대심도 임팩트 평가 결과

	경제	환경	사회	총합
임팩트	[6,619]	1,868	14,445	9,694
할인율 적용	[3,751]		4,729	978

*할인율 : 임팩트를 기준연도의 불변가격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5.5%를 적용 하였음

프리콘스트럭션 서비스란?

시공 전에 철저한 설계 검토와 시공계획을 통하여 비용 절감, 공기 단축,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기존의 프로젝트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시공 전 활동들을 선진기술과 관리기법으로 고도화시키고, 여러 참여주체들(발주처·설계사·시공사 등)이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춘 혁신활동입니다. 2016년에는 국토부 주관의 공공PCS(Pre-Construction Service) 도입을 추진하였으며, GS건설은 이 제도를 2013년에 도입하여 국내최초·유일·최고의 민간PCS실적들을 바탕으로 수주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프리콘을 통한 원가절감 사례

GS건설은 대구 DGB 데이터센터 신축시 PCS사전 시공성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6개월간의 PCS기간 동안 6차례에 걸쳐 비용추이를 관리하였고 초기 998억원대비 15%에 해당하는 149억원을 절감하여 발주처의 만족을 극대화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GS E&C Story



지식자본 가치창출



“지식자본은 미래경쟁력을 위한 필수요건”

건설시장 발주처 입찰방식이 최저가 낙찰제에서 종합심사 낙찰제로 변화함에 따라 회사의 경쟁력은 과거 가격 중심의 경쟁력 확보보다는 전문성과 기술역량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GS건설은 원천기술 개발과 함께 건축, 토목, 에너지, 환경기술을 융합하여 각 사업과의 시너지를 창출하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이 융·복합된 미래 시장에 대비하여 IT와 인공지능이 연계된 미래 건설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인공지능 센서 기술 및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기술 등을 접목한 미래형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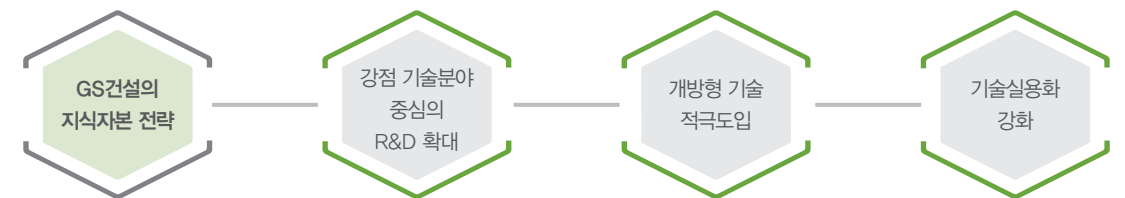
_GS건설 기반기술연구팀 이성일 차장

지식자본의 중요성

건설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IT와 인공지능 등 지식자본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글로벌 시장 진출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GS건설은 조직의 기술, 특허, 지적재산권 등의 지식기반 무형자산을 지식자본으로 규정하고 기술개발 전략을 바탕으로 신기술 개발과 친환경기술 개발 등 지식자본을 통한 가치창출로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GS건설의 접근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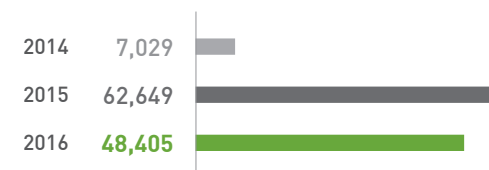
GS건설은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술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강점 기술을 중심으로 R&D를 강화하고, 외부 우수기술을 적극적으로 현장에 도입하여 기술실용화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6년 GS건설은 기술 본부를 중심으로 연구개발비 463억원을 투자하였으며, 녹색기술, 환경 신기술 등 친환경기술 개발을 통해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 효과를 이루었습니다.



주요 지식자본 성과

탄소저감 효과(그린콘크리트 개발)

단위: tCO₂-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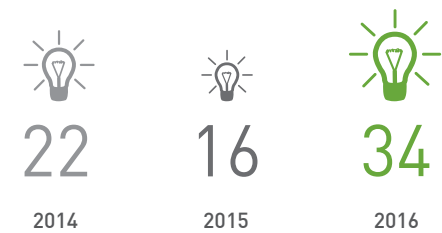
연구개발비

단위: 억원



실용화 된 기술

단위: 건



기술실용화 성과

단위: 억원



기술개발 전략

현재 건설업은 저유가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업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수익창출에 주력해 왔으나, 변화된 글로벌 시장환경 속에서는 기술을 통한 차별화된 가치 창출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GS건설은 강점기술을 개발하고 개방형 기술 도입을 통해 발굴된 우수기술을 현장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점 기술분야 중심의 R&D 확대·심화

GS건설은 제한된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기존의 강점 기술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강화하였습니다. 생산성 향상기술, 유망 사업 핵심기술, 기술 융·복합을 통한 기술 Package 상품 제안 등 3가지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총 41개의 기술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2011년 신성장사업팀에서 선정된 유망사업 11개 분야에서 공동주택 Hybrid 공조시스템 기술, 스마트 도시에너지 관리, 해양 Pipeline 설계기술 등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특화기술로 심화시켰습니다.

개방형기술 적극 도입

GS건설은 외부 우수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에 유용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6년 외부 우수기술 활용체계를 구축하여 화재 대피공간 활용 기술, Galva Shield를 이용한 염해 관리 기술 등 15건의 개방형 기술을 도입 및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강남구와 공동으로 화재 대피공간이 없는 노후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화장실을 화재 대피공간으로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1984년에 지어진 청담동 진흥아파트 10세대에 화장실 대피공간 설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로당 화장실 2곳에 시험시공을 완료 하였습니다.

기술실용화 강화

2011년 기술실용화 TFT(Task Force Team)를 통한 실용화 체계 정립 이후 기술실용화 체계가 정착되었습니다. 인프라·건축 중심의 조직개편 이후에는 전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외부 기술을 도입하여 현장에 실용화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LG사이언스파크 및 힐스테이트자이에 각각 그린콘크리트 기술과 주차장 2대 모듈 기술을 도입하는 등 총 34개 기술을 86개 현장에 적용하여 173.5억원의 기술실용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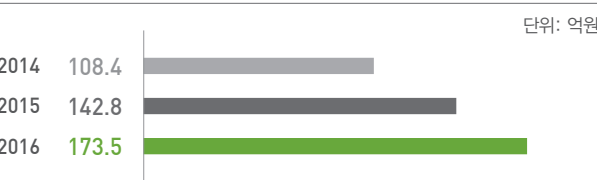
2016 DJSI 평가 결과

자원보전과 자원효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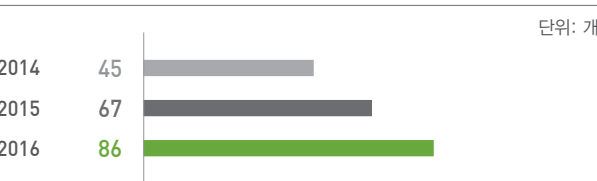


기술실용화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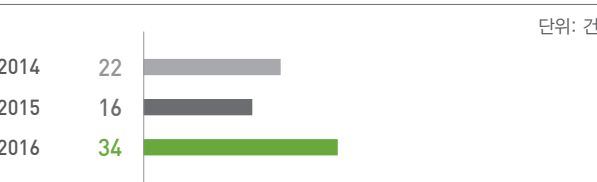
실용화 성과



적용현장



실용화 된 기술



친환경기술개발 성과

스마트 정수 시스템

최근 국내 주요 하천들의 물 체류 시간 증가 및 기후변화로 인해 조류 발생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류가 정수장으로 유입되면 역세 폐수가 발생하는 등 정수처리 운영 상 애로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어 경제·환경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에 GS건설은 실시간 조류측정기를 사용하여 조류 종에 따라 오염을 완화시키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막여과 공법대비 운영비를 약 20%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린콘크리트 개발 및 현장 사용화

건설산업에서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주원료인 시멘트 생산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를 차지할 정도로 탄소집약적인 공정을 거칩니다. GS건설은 규정 부산물을 활용하여 시멘트 사용량을 저감한 그린콘크리트를 개발하였으며, Pre Max설비 구축을 통해 필요한 강도와 품질을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2016년 LG사이언스파크 외 13개 현장에 적용하여 48.6억원의 탄소 저감효과가 발생 하였습니다.

그린콘크리트 개발 기술로 인한 탄소저감량

	2014	2015	2016
온실가스 저감량	7,029	62,649	48,405
절감액	25.7	50.2	48.6

아파트 에너지 절감 기술

정부는 아파트의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하고 신재생 에너지 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2025년 까지 모든 민간 건물에 '제로에너지' 의무화를 실시하기로 밝혔습니다. 이에 GS건설은 급탕 환수 방식을 변경하여 온수 사용시 물 및 가스 절감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지하주차장용 LED 조명 등의 기술을 도입하여 에너지사용량 절감을 통해 공사원가를 절감하였습니다. 2016년 기술을 통한 세대별 에너지 절감량은 약 17%에 달하며, 공사원가는 약 15%가 절감되었습니다.

신기술개발 성과

하수처리 재이용 기술

GS건설은 물 수요를 해결하고 해외 물 부족 국가의 물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하수처리 재이용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기존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는 사업은 전체 하수처리 공정 중 재이용이 불가능한 반류수 처리시설 증설에 대한 재무적 부담이 높아 추진이 보류되었습니다. 이에 GS건설은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하기 위한 공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전력사용량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소비전력량을 모니터링하여 사용전력량 추이를 파악하고 재이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농축수의 세정시점을 예측하여 과다한 폐수와 고압펌프 등의 전력사용량을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특허 2건, 녹색기술 인증을 받았으며, 이를 적용하여 구미하수재이용 민자제안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플랜그리드 도입

GS건설은 국내 건축 현장에 공유 프로그램 '모바일 협업 시스템(Plan Grid)'을 도입해 '스마트 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로써 건설 현장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도면수정 및 변경사항에 대해서 공사 관계자들이 최신 버전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 시공상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였습니다. 효과적인 현장적용을 위해 건축수행본부 57개 현장에 플랜그리드 의무 적용 지침을 내리고 현장소장부터 시공담당기사까지 태블릿 PC와 프로그램 ID를 제공하고, 사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건축수행본부 전 현장을 대상으로 해당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 플랜그리드: 미국에서 개발한 도면 공유프로그램으로 도면수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실시간 공유를 통해 시공상 혼란 및 재시공을 방지하도록 건설 현장 프로젝트에 최적화된 시스템



환경자본 가치창출



“미래관점에서 환경친화적 활동이 필요”

자연자본은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공유재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한 영역인 기업에서 사업상 환경적 가치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GS건설은 정부 정책에 순응하여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방식과 잘 조화된 환경 및 사회공헌활동이 향후 건설업이 주는 환경파괴적 요소를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상쇄할 수 있도록 전략적 차원에서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공기질, 미세먼지 등 보건분야에 관련된 시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기 때문에 신규 건설시 이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반영하여 앞서가는 기업으로 나아가길 당부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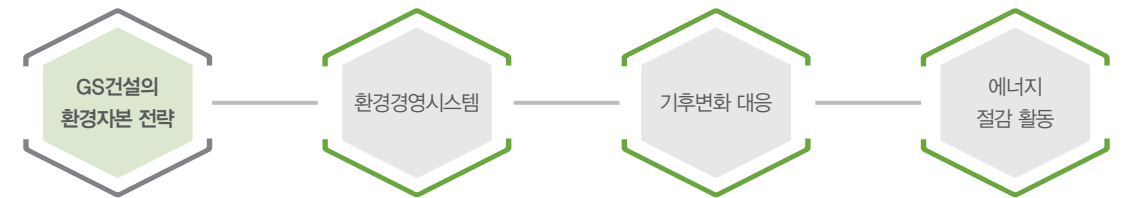
—성신여대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 김경신 교수

환경자본의 중요성

GS건설은 재생 가능하거나 재생 불가능한 일체의 환경자원 및 프로세스를 자연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자원고갈, 물부족 등 환경이슈가 중요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정부는 환경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014년부터 건설업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편입되면서 건설업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감소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였습니다.

GS건설의 접근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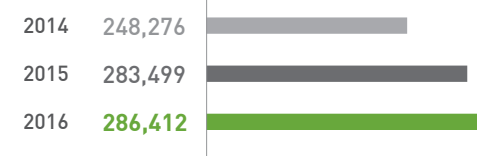
GS건설은 환경경영전략을 세우고 202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 7.1% 감축을 목표로 친환경 사업장 조성, 환경경영 시스템 강화,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의 3대 전략방향에 따른 9개 전략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전략실행을 위해 핵심성과 지표를 선정하여 연도별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GS건설은 2016년 녹색제품 투자 비율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목표대비 80% 이상의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주요 환경자본 성과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tCO₂-e



녹색구매 비용

단위: 억원



고효율 에너지 빌딩 비율

단위: 퍼센트



환경법규 위반

단위: 건



환경경영시스템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기업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입니다. GS건설은 환경경영 전담조직인 녹색환경팀을 중심으로 환경경영전략 및 성과관리를 통해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 재활용률 등 핵심 환경성과 지표를 선정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전략

GS건설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7.1% 감축을 목표로 친환경 사업장조성, 환경경영시스템 강화,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을 위한 3대 전략방향과 9가지 전략과제를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전략 시스템			
목표	Eco Global Top Tier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7.1% 감축(BAU 대비)		
1	친환경 사업장 조성		
세부과제	Zero Pollution 달성	자발적 환경규제 대응	전과정 평가 시스템 구축
2	환경경영시스템 강화		
세부과제	글로벌 환경경영 강화	환경 커뮤니케이션 강화	전담조직 및 전문가 양성
3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		
세부과제	전사 및 협력 회사 온실가스 감축활동 강화	온실가스 감축 사업 및 관련기술 개발	온실가스·에너지 진단 역량 확보

환경경영시스템

GS건설은 현장 환경관리 업무지원을 위해 공종별 환경정보, KM 환경업무 매뉴얼, 현장 환경업무 가이드로 구성된 환경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종별 환경정보시스템은 절차, 표준, 체크리스트, 교육 등 현장 활동과 밀접한 정보를 'PDCA(Plan-Do-Check-Action)기법'을 통해 현장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조직

GS건설은 CSO(Chief Safety Officer) 직속의 녹색환경팀을 주축으로 전사 환경경영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팀은 사업부문 Q·HSE(품질·안전·환경) 담당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전사 환경업무를 기획하고, 환경리스크 및 현장 환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6 DJSI 평가 결과	
환경정책·관리체계	
GS건설	90
건설업 평균/최고점	73 / 100

환경경영 성과관리

GS건설은 녹색경영성과 평가 절차서에 따라 총 19개 지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6개를 핵심성과 지표로 선정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행성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성과 지표				
핵심성과지표	2016년 달성도	2017년 목표	2020년 목표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tCO ₂ -e)	High 85%	BAU 대비 5.3% 감축	BAU 대비 현장 7.1% 감축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tCO ₂ -e)	Achieved 109%			
폐기물 재활용률 (퍼센트)	Achieved 117%	84% 이상	90% 이상	
원·부자재 녹색 구매 비율(퍼센트)	High 82%	11.2% 이상	11.8% 이상	
환경보전 활동 (건수)	High 96%	연간 50건 이상	연간 50건 이상	
녹색제품 투자 비율(퍼센트)	Medium 50%	64% 이상	70% 이상	

환경법규 준수 G4-EN29

GS건설은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환경보전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계획, 설계, 시공 및 서비스에 이르는 모든 활동으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인허가 취득은 물론 정부가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 각종 환경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8건의 환경법규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44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 중 하나로 대부분의 산업은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건설업에서는 이상기후로 인한 근로자 작업역량 저하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GS건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등록하고, 고효율 에너지 빌딩을 건축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활동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실적(KVER) 등록

GS건설은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6개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목적으로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제도인 KVER에 등록하였습니다. 2016년 그린콘크리트 사용으로 48,405tCO₂-e를 절감하였으며, 화상회의로 인한 온실가스 절감량 4.92tCO₂-e, 엘리시안 강촌 난방시스템 교체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570tCO₂-e을 포함하여 총 48,980tCO₂-e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		단위: tCO ₂ -e, 백만원		
	2014	2015	2016	
총 배출량	248,276	283,449	286,412	
감축실적	568	570	570	
절감추정액	5,100	6,300	9,325	

협력회사 환경경영 유도

GS건설은 녹색구매시스템을 구축하여 친환경 자재 인증 기업의 정보를 관리하고 녹색구매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신규 기업등록 시 친환경 자재 품목 및 인증정보를 받고 있으며, 이를 가산점으로 두어 협력회사가 녹색인증을 보유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녹색구매와 관련한 주요 정책사항을 사내 커뮤니케이션 웹사이트인 GS-Constmat을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녹색구매 확산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인증별 녹색구매 실적		단위: 억원		
	2014	2015	2016	
HB마크	104.37	32.61	32.46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19.79	149.39	275.22	
에너지 소비효율 1~2등급	48.34	35.43	84.89	
환경마크	73.07	100.17	192.96	
총합	245.57	317.60	585.53	

2016 DJSI 평가 결과	
기후변화 전략	
GS건설	100
건설업 평균/최고점	54 / 100

에너지 절감 활동

고효율 LED 조명 개발

GS건설은 전력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가설용 고효율 LED 조명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단가를 유지하면서 에너지 사용량을 5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조명으로 2015년 11월부터 현장에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력 사용금액 약 3.6억원 절약, 온실가스 1,537tCO₂-e 절감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LED 조명개발 성과		단위: 억원, tCO ₂ -e		
	2014	2015	2016	
전력사용금액 절감	-	3.0	3.6	
온실가스 절감 기대량	-	1,309	1,5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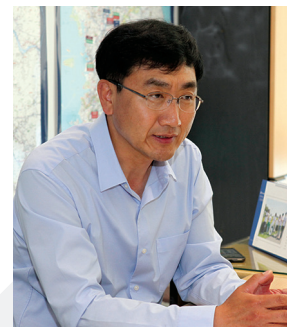
고효율 에너지 빌딩 건축

정부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을 2013년 2월 공포하여 시행함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관리 대상범위가 확대되고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GS건설은 건축물 에너지 절감 정책 및 그린빌딩, 그린홈 확산을 위해 비용효율적인 건물에너지 절감 설계 방안을 수립하였고, 초기 설계단계에서 건물 에너지 평가를 통해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건물 에너지 최적 설계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친환경 건축 기술은 주한미군이전(YRP) 통신센터, 진천선수촌, 아난티 서울 펜트하우스 등에 적용되었으며, 향후 공공프로젝트 및 기술제안 수주 지원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고효율 에너지 빌딩 비율		단위: 퍼센트		
	2014	2015	2016	
고효율 에너지 빌딩	38	31	36	



인적자본 가치창출



“소통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안전사고 감소 노력 지속”

건설업에서 임직원에게 가장 우선시되는 가치는 안전입니다. GS건설은 CEO 및 임원이 현장에 자주 방문하여 사업본부와 현장 간 소통을 원활히 하며 근로자들이 스스로 안전을 행할 수 있는 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신호등 제도를 도입하고 현장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면 30분 이내로 안전임원과 팀장들에게 보고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우수 협력사를 선정하여 매년 2건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함으로써 협력사의 자발적인 안전활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_GS건설 안전담당임원 박찬정 상무

임직원의 중요성

임직원은 기업의 가치를 창출해내는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입니다. 임직원이 기업에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기업의 중장기 가치창출에 이바지하는 길입니다. 이에 GS건설은 임직원의 역량, 능력, 경험, 혁신을 가치 창출 영역으로 규정하고 임직원이 장기 근속하면서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GS건설의 접근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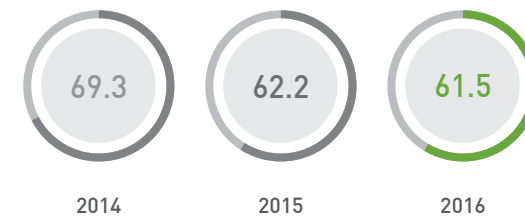
GS건설이 추구하는 조직문화의 모습은 ‘변화를 선도하며, 안전과 최고를 추구하여, 함께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안전’, ‘공정한 인사’, ‘실행력’이라는 3가지 경영 원칙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구현하고, 임직원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무 만족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매년 GS조직역량서베이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 및 임직원의 가치창출을 위한 개선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임직원 성과

임직원 만족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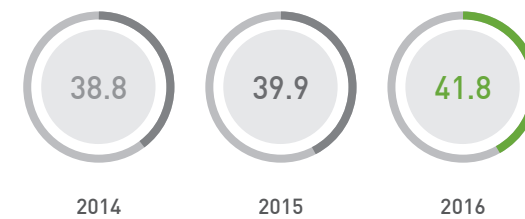
1인당 교육시간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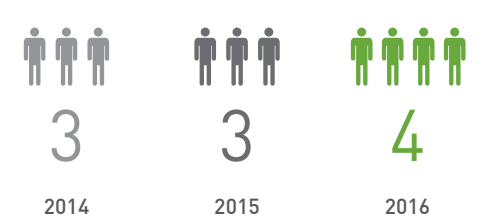
노동조합 가입비율

단위: 퍼센트



중대 재해자 수

단위: 명



임직원 전문성 개발

임직원의 교육과 훈련은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 높은 업무만족도와 성취감을 갖게 합니다. 지식기반 사회에서 임직원의 전문성은 기업경쟁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통합적 관리체계와 조직적인 학습을 통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에 GS건설은 ‘리더십 과정’, ‘직무 전문성 과정’, ‘글로벌 과정’ 등의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임직원의 역량 향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 전략

GS건설은 성과창출에 기여하는 실력과 리더십을 갖춘 Global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육성체계는 ‘리더십 과정’, ‘직무 전문성과정’, ‘Global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과 중심의 인재개발 전략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임직원들의 사업수행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교육, 화상교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의 교육을 제공하여 다양한 근무지의 임직원들이 편리하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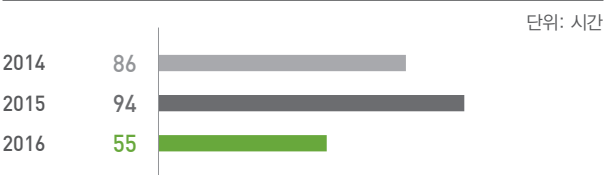
교육인원(누적)



총 교육비용



1인당 교육 시간



2016 DJSI 평가 결과

인적 자본 개발



조직성과 창출전략

육성체계	교육과정
리더십 바람직한 리더육성	임원 및 팀장급 직책자 대상 교육
	리더십 진단 → 교육 실시
	리더 행동 변화 유도 하위직 교육 확대(예정)
직무 전문성 실력있는 인재육성	직원 대상
	임직원 실무 역량 제고
	직무 수준별 교육 실시 전환 배치 직원 전환자 교육 실시
글로벌 글로벌 인재육성	직원 대상
	해외사업 수행 역량 제고
	어학교육 해외근무 한국인 임직원 협업 역량 교육

GS 조직역량 설문조사

GS건설은 조직역량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직역량과 문화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경영활동을 위한 9개 필수요소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영역량, 조직문화, 리더십, 인적역량 등에 대한 강·약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활동입니다. 연 1회 주기적으로 실시되며, 임직원 전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6년 설문조사에서 경영역량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61.5%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직원들은 회사의 재무적 성과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의 누적된 피로도는 주요 불만요인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임직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폭넓은 소통과 개선활동을 실시 할 예정이며, 이로써 보다 더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임직원 조직역량평가

	2014	2015	2016
임직원 조직역량평가	69.3	62.2	61.5

일하고 싶은 회사

일하고 싶은 직장(GWP)을 만드는 것은 성공적인 인재확보와 유지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GS건설은 임직원 중심의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공정한 성과평가와 보상, 복리후생과 유연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임직원들이 차별받지 않고 고충없이 직장을 다니고, 미래를 꿈꾸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회사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공정한 성과평가와 보상

육성형 성과관리 시스템

GS건설은 직원의 성과증진과 인재육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육성형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성과관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성과평가를 업적 부분과 역량 부분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 각자의 수준에 맞는 도전적이고 달성 가능한 업무목표와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면 개인의 성과와 역량이 정기적인 피드백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평가 시에는 MBO (Management By Objectives) 평가, 다면평가, 직군 내 상대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문·본부 단위의 전 임원 참석 하에 시행되는 평가조정 Session을 통해 평가등급이 결정되며, 평가결과는 HR(Human Resource) Monitoring을 통해 공정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성과평가 및 경력개발 심사

	2014	2015	2016
성과평가 비율	89.6	91.7	95.0

성과주의 인사제도와 보상

임직원의 합리적인 성과보상을 위해 조직의 성과와 개인의 성과를 보상에 연동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성과와 역량에 따라 보상하며 성별·인종 등 어떠한 차별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성과는 급여 및 승·진급에 반영하여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피드백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진의 경우에는 재무성과, 인지도 성과, 환경성과, 사회성과 등 전 분야에 걸친 성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6 DJSI 평가 결과

인재확보·양성



복리후생과 직원 문화

출산지원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GS건설은 출산을 장려하고 임직원이 출산 후에도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배우자의 출산 의료비 보장, 직장 내 보육시설 운영, 난임 휴직제도, 출산·모성보호 지원을 확대하여 임직원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통한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출산휴가사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업무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무율 역시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현황

	2014	2015	2016
출산휴가사용률	4.6	7.7	8.1
육아휴직 후 복직률	91	97	97
출산휴가사용자	21	35	31
육아휴직사용자	23	27	33
여성 육아휴직사용자	19	19	24

직장 내 보육시설 운영

GS건설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2010년 이후로 사내 어린이집인 '꿈과 희망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직원들의 안정적인 출산과 육아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연령에 따라 8개월 이상 아이부터 만 5세의 어린이를 6개반으로 나누어 보육교사 15명이 지도합니다. 선발기준은 한부모 자녀에 우선권을 주고 있으며, 대기신청까지 받을 정도로 임직원의 관심도가 높습니다. 2016년 62명의 어린이가 입소하여 교육을 받았습니다.

일하고 싶은 회사

인권 및 다양성 존중

평등한 기회제공

GS건설은 성별, 연령, 국적, 결혼, 건강상태, 정치적 성향 등에 기반한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고용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 필요성에 따라 보수 및 승진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특히 사회적 소수계층의 평등한 기회제공을 위해 여성, 장애인, 국가 보호자 비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성 임직원 비율은 건설업의 특성상 높지 않으며, 장애인과 국가보호자는 채용상 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소수계층

단위: 명

	2014	2015	2016
장애인	45	71	96
국가보호자	94	94	93

인권교육 및 인권위험요소 예방

GS건설은 전 세계 모든 임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비롯한 일체의 인권 침해 상황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전 임직원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조직문화를 만들도록 임직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매년 성희롱 예방교육, 문화권별 비즈니스 입문 교육을 통해 성별·국적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2016년 GS건설 6,876명이 2시간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2016 DJSI 평가 결과

노동관행·인권	
GS건설	68
건설업 평균/최고점	38 / 94

외국인근로자 인권보장

외국인 근로자 현황

GS건설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17개 국가에서 7,6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고용방식에 따라 외국인정규직(GP), 외국인계약직(GC), 외국인보조원(GA), 외국인기술자(GT)로 구분됩니다. 외국인정규직은 임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책임이 국내정규직과 동일하며, 외국인계약직은 개인의 성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현황

단위: 명				
국적	인도	필리핀	네팔	방글라데시
인원	3,289	1,478	686	630
국적	이집트	베트남	기타	총합
인원	484	352	716	7,635

인권정책

GS건설은 2015년 현장에서 자의적인 인사운영을 방지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초기적응 지원 강화를 위해 외국인정규직(GP) 관련 통합 인사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인사정책에는 임용, 복무 등을 비롯하여 인권침해 상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성희롱예방, 고충처리 등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정규직에게도 국내 정규직과 동일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노사관계

임직원은 기업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이며,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정착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GS건설은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열린 경영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 및 조직 간 소통을 장려하며,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와 노사 상생협력을 통해 임직원과 경영진 간 온도 차를 줄이고자 합니다.

열린경영 프로그램

GS건설은 CEO와 임직원 간의 소통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 GS건설만의 CA(Change Agent)제도를 시행하여 임직원 커뮤니케이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CA는 부문·본부·실별 조직역량개선 활동의 기획과 실행을 담당하며, 직원 의견수렴 및 소통, G-Spirit 및 리더십 개선 활동의 조력자, 전사 사회공헌 활동 참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GS건설은 CA에 대해 Workshop, 사외교육 등의 육성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통활동비 지원과 연말 봉사활동 참여 등을 통해 직원들과의 소통 기회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경영현황공유회 운영

GS건설은 경영현황공유회와 경영위원회를 통해 경영성과 및 사업 현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영현황공유회는 사업환경, 당해년도 사업 추진 전략, 조직역량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며 경영위원회는 현안공유회에서 논의된 사항 및 안전, 환경 등 비재무적 현황까지 공유하며 GS건설의 전반적인 발전 현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영현황공유회 운영방식



온라인 고충처리게시판

임직원의 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 게시판 VOE(Voice of Employee)를 개설하여 고충사항을 접수·해결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이 질문을 작성하면, 2주 이내로 질문 해당 담당자가 답변을 하고 질문자가 답변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016년에는 스마트폰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기능을 활용한 사원증 대체 등 43건의 고충 접수를 받았으며, 모든 접수 사항의 처리를 해결·완료하였습니다.

노사 상생협력

GS건설은 과장 이하 사원 중 관리 직군(재경, 기획, 인사, 총무)을 제외한 정규직 1,107(41.8%)명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상을 통해 임금협약(매년)과 단체협약(격년)을 체결하는 등 근로자의 노동3권을 존중·보장하고 있으며, 회사 경영상 중요사항에 대해 즉시통보 및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1회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 근로조건 및 안전보건 관련 작업환경 개선, 근로자의 건강증진 등 노사공동의 이익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논의와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가입현황

단위: 퍼센트			
	2014	2015	2016
노조가입비율	38.8	39.9	41.8

노조가입 인원

		단위: 명	
2014	1,160		
2015	1,142		
2016	1,107		

“차별없는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정책에 만족”

GS건설은 글로벌 HR 정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휴가, 진급, 복지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한국인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특히 근로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휴가는 직급에 따라 3개월 반에서 6개월 간격으로 휴가 사용시 회사에서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한 직항항공권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들이 고충으로 꼽고있는 한국의 상명하복식문화, 언어문제, 현지 적응문제 등을 개선하고자 동일처우, 해외근로자 설문조사, 진급시 영어시험, 1:1 버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국인과 외국근로자들의 차별을 없애고,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여 협력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_Global HR팀 Marilyn Manalaysay 대리

Interview



안전보건 정책

임직원 안전의 중요성은 재무가치로 환산할 수 없으며 회사평판, 직원사기, 생산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GS건설은 ‘기본과 원칙의 준수’라는 안전보건 방침 아래에 ‘다시 도전하자! 중대재해 ZERO’를 목표로 현장 중심의 선진 안전관리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전담조직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조직 내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경영 체계 강화

안전보건경영 추진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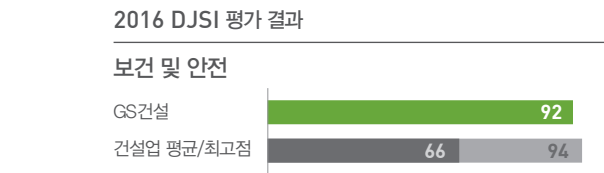
GS건설은 최고안전책임자(CSO) 산하에 안전보건팀, 시공안전팀, 안전혁신학교를 조직하여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CSO가 주관하고 각 사업본부장이 참석하는 전사 Q·HSE(품질, 안전, 환경) 운영위원회를 매월 2회, 총 21회 실시하여 최고경영층의 의견을 전 임직원들에게 전파하고 안전 보건관리에 대한 이슈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분기별 사고경향 분석 및 최근 타사 사고사례 공유, 안전보건 관련 정부동향, 시공안전팀 및 기술안전지원팀의 현장점검 이슈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공유하고 전파하여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안전문화 구축

GS건설은 안전문화 정착을 통해 중대재해를 근절하고자 안전 문화 등급을 규정하여 단계별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2015년은 자발적단계로 개인적 지식, 의지에 따라 구성원 스스로 안전규정을 지켰다면, 2016년에는 상호의존적 단계로 도약하기 전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안전규정을 지키는 문화를 정착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KOSHA 18001 및 OHSAS 18001 인증 유지를 위한 사후심사를 완료하였고, 내부적으로 현장 별 Q·HSE 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한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스템 보완 활동을 통해 안전보건경영 체계를 강화 하고 있습니다.

안전문화 등급

1단계	사후반응적 단계	~2009년
2단계	의존적단계	2010~2012년
3단계	자발적 단계	2013~현재까지
4단계	상호의존적 단계	향후~



안전사고 예방활동

안전혁신학교 운영

GS건설은 2006년 3월 국내건설회사 최초로 안전혁신학교를 운영 하여 현장 방문교육 과정과 현장 특성과 시기에 맞는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사고 핵심 원인인 산업안전 이슈를 완화하기 위해 특수근로자 License제도, 안전혁신 Leader 육성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전문가를 육성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15일에는 국내 최초로 싱가포르 지역에 안전혁신학교를 설립하였으며, 홍콩 가스에너지 기술자 협회 및 탄자니아 건설협회에서도 안전혁신학교를 방문하는 등 GS건설 안전보건교육문화의 메카로 자리잡았습니다.

안전혁신학교 교육 이수자



안전 신호등 제도를 통한 안전 관리

GS건설은 현장의 안전관리수준 결과를 신호등과 같이 '녹색, 노랑, 적색'의 3단계로 분류하고 GS건설 필수안전수칙, 즉시 개선제도 위반 사항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2016년 334회의 안전신호등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GS건설 필수안전수칙 7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벌점을 부과하는 등 현장의 안전관리 수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장 관리자들이 상시적으로 안전등급을 확인할 수 있어 현장 내에서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문화가 확산되었습니다.

장비전문가 점검 실시

GS건설은 5명으로 구성된 장비전문가들이 장비점검 및 현장요청 점검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장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을 실시합니다. 2016년도에는 장비점검 235회, 장비기술지원 33회, 장비사전검사 284회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작업 지원을 총 325회 실시하는 등 장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0대 건설사 중에서도 유일하게 7년 동안 건설장비로 인한 중대재해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보건 인력 육성

2015년부터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이 의무화 되는 등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GS건설은 보건사고 예방을 위해 근무 시기별 교육, 월별 보건활동 테마 선정, 현장지원을 통해 보건관리자를 육성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해운대자이 2차 현장에서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을 인증 받았고, 안전보건 강조주간 보건부문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신반포자이 현장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며 보건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분야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밀폐공간 작업', '유해물질', '작업환경관리' 3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건관리 실행력을 강화하여 현장의 보건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임원 안전보건경영 활동

GS건설은 현장근로자들의 안전을 점검하고 격려하기 위해 CEO 및 임원이 직접 현장방문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CEO는 10개의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CSO는 신반포자이 현장을 비롯하여 약 100개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위험요소와 중점관리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관계자의 역할과 업무개선 방향에 대한 지도편달 및 직원과의 소통을 통해 사고 예방에 기여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현황

중대재해발생 현황 G4-LA6

GS건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발생시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주택사업 발주가 증가하면서 건설현장 및 현장 근로자의 수는 증가하였지만 관리 직원 수는 현장근로자 비율만큼 늘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재래형 사망사고가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관리자 총원과 더불어 불안정한 행동에 대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근로자 행동기반의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중대재해 ZERO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자 현황

	2014	2015	2016
산업안전사고	2	1	4
시공/기술안전사고	1	2	0
총 사망자수	3	3	4

작업부상 손실 관리 G4-LA6

GS건설은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임직원과 계약업체의 부상자 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경우 부상정도에 따라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병가일수를 기준으로 병가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계약업체의 경우 부상자수를 본사에서 관리하고, 해외 계약업체의 부상자 수는 각 지사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작업부상 현황

	단위: 부상손실시간, 병가손실시간/백만근무시간		
	2014	2015	2016
작업부상	0	0	0
병가현황	531.77	419.73	528.14



사회·관계자본 가치창출



“임팩트 높은 사회공헌사업 수행 필요”

지역사회 개발과 사회공헌은 기업의 평판제고와 함께 임직원 사기진작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초록우산재단은 2006년부터 GS건설과 함께 사회공헌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GS건설이 어려울 때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꿈과 희망의 공부방, 놀이터” 등의 사회공헌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었습니다. GS건설의 사회공헌은 건설업과 연관된 활동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합니다. 지금은 GS건설과 NGO가 파트너십을 이루어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고객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한다면 재무적인 관점에서 임팩트가 높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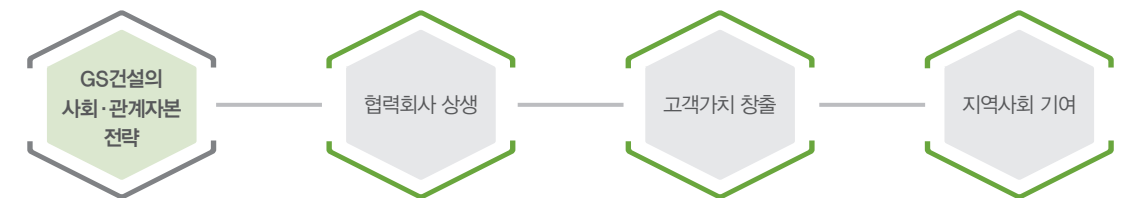
__초록우산재단 이종화 본부장

사회·관계자본의 중요성

GS건설은 지역사회, 고객, 협력회사를 사회·관계자본으로 분류하고, 개인과 단체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 속에서 차별화를 위한 가치있는 기업 이미지 구축은 사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은 건축물의 품질과 함께 사업운영 과정에서 기업평판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에 GS건설은 협력회사, 고객, 지역 사회와의 가치있는 관계형성과 상생을 위한 협력 및 투자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GS건설의 접근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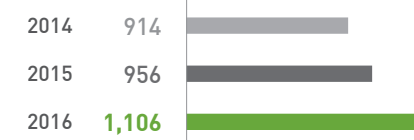
GS건설은 사회관계에 얹혀있는 이해관계자들의 관리 및 투자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협력회사의 경제 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적 리스크까지 고려하여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으며, 기업고객과 개인고객 모두의 기대사항을 경청하고, 경영 활동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공헌 사업을 장기간 진행하여 지역사회 필요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회·관계자본 성과

협력회사 수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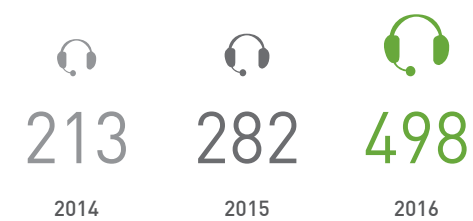
사회공헌 금액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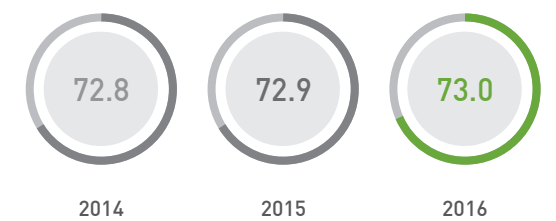
VOC 시스템 민원현황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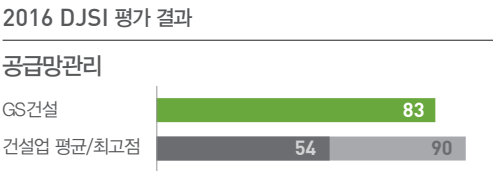
고객만족도 조사

단위: 점



*출처: GSCI(글로벌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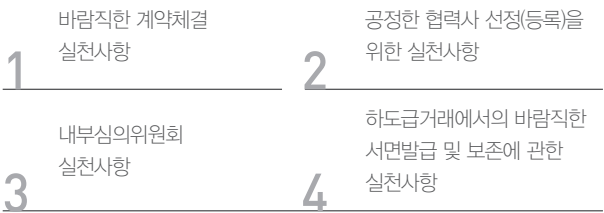
협력업체 동반성장



제품과 서비스 하도급은 업무상 책임과 함께 기업의 평판 리스크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기업과 투자자들은 공급망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관리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GS건설은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4대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실천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울러 협력사들이 환경, 사회적 요소를 고려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상생 전략

협력사 상생 4대 실천사항



협력사 선정

GS건설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기본 원칙으로 한 자동선정 시스템을 통해 협력사를 선정합니다. 협력사는 업체 등록시스템을 통해 Pool에 등록되어 주력·예비·검증·지역군에 속한 협력사에 선정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선정점수는 선정빈도 20점, 수익성 점수(종합평가) 35점, 분기평가 40점(안전점수 12점), 동일지역 5점 및 기타 가감점을 매겨 점수 상위 순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16년 신규등록한 협력사는 상반기 94개, 하반기 82개로 총 176개 기업이 추가 되었습니다. GS건설은 협력사에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자율경쟁을 통해 협력사의 경쟁력 상승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을 위한 내부심의위원회 운영

월 1회 이상 실시되는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는 협력사와 관련된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거래 중 계약 체결 및 가격결정 과정의 공정성 여부, 관련 법규 적법성여부, 협력회사 의견청취, 동반성장 관련 제도 등 주요 하도급 관련 업무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해 협력사와의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GS건설은 2016년 22회의 내부심의위원회를 열어 협력사 공사발주 현황, 계약체결 협력사 포상 선정 등을 논의하여 협력사와의 공정한 관계 정립에 주력하였습니다.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 강화

차기 CEO 교육 실시

GS건설은 협력사의 질적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협력사 차기 CEO 교육을 운영하여 차세대 CEO들의경영능력을 배양하고자 하였습니다. 1박 2일동안 진행된 합숙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은 리더쉽교육 및 안전관리 등 CEO 역할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필수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수료 하였습니다. 향후 교육생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교육시간을 확대 하고 과정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자이 CEO 포럼 운영

GS건설은 협력사들의 소통 프로그램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GS건설 임원과 협력사 대표들이 참여하는 자이 CEO 포럼을 2004년 이후 매년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0명의 협력사 대표자들과의 소통 및 경영마인드 강화를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협력사 관련 주요제도 및 이슈별 간담회와 의견청취를 통해 협력사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우수협력업체를 시상하여 동반성장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였습니다.

협력사 금융지원

GS건설은 경영지원금, 상생예금, 대금 지급조건 개선, 계약보증 등의 제도를 통해 협력사에 금융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경영지원금 제도를 통해 선금금 형태로 연 잔액 평균기준 약 292,6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였고, 추천 협력사를 선정해 대출 심사를 우대하며 상생예금을 통해 26개사에 197.2억원 규모의 대출을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보증 제도를 통해 2016년 0.2억원의 계약료를 면제하였습니다. 특히 하도급 대금지급 수단 중 현금결제 비율을 높이고 대금지급 기일을 10일 이내로 지정하여 국내 주요건설사 중 프로젝트 마감 후 최단기일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사회적 책임 유도

협력사 CSR 확산

GS건설은 협력사와의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경영의 3대 축인 트리플 바텀라인에 따라 경제, 환경, 사회적 차원의 사회책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CSR 유도 전략

경제적 활동	기업지배구조, 리스크관리, 윤리경영, CRM
환경적 활동	환경정책, 친환경 활동, 기후대응 전략
사회적 활동	노동규범 준수, 인적자원 관리·육성, 사회공헌활동, 안전·보건
인프라	외부 인증·공개, 지속가능경영 전략·체계

주요 협력사 식별 G4-13

GS건설은 리스크관리 일환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협력사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주요 협력사들의 경제·환경·사회 리스크를 관리하여 중장기 가치창출에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GS건설은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거나 많은 양을 거래하고 있는 협력사를 주요 협력사로 분류하고 있으며, 세부기준은 납품 품목에 따라 기준이 상이합니다. 2016년에는 1,106개 협력사 중 345개의 기업을 주요 협력사로 분류하였으며, 이들의 매출 비율은 전체의 74.5%에 해당됩니다.

협력사 리스크관리

GS건설은 주요 협력사의 재무, 비재무적인 리스크를 분석하여 가치창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를 경제, 환경, 사회범주로 분류하여 엄격한 기준에 따라 평가·감독하고 있으며, 필요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들은 협력사 자격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리스크 기업들의 비율은 낮게 나타나며, 2016년 경제, 환경, 사회적 리스크 기업은 각각 5.6%, 0%, 0.2%로 평가되었습니다.

협력사 시정 조치

GS건설은 협력사들의 운영상 불성실 행위에 경각심을 심어주고, 경쟁력 상승을 유도하고자 정기평가를 통해 제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안전, 고객만족 등의 종합적 평가를 통해 낮은 점수를 받은 기업들은 경고에서 영구 퇴출까지 제재를 내리고 있습니다. 2016년 낮은 평가를 받은 7개 협력사에 대해 시정조치 메일을 송부하여 협력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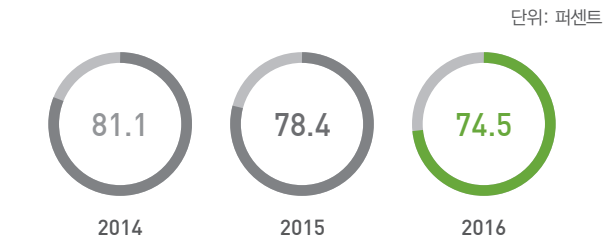
협력사 수



주요 협력사



주요 공급업체 매출비율



고객만족 활동

글로벌 기업들의 품질이 상향 평준화됨에 따라, 고객가치를 제고하여 기업의 평판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건설업은 재구매가 빈번히 이루어지지 않으나, 제 3자의 추천이 서비스 선택에 중요한 영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GS건설은 기업고객과 개인고객 모두가 만족 하도록 품질 향상을 비롯한 고객가치 향상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전 품질관리

사전 품질점검 G4-PR1

GS건설은 최고의 결과물을 제공하기 위한 사전 품질점검 활동으 로 단계별 업무과정 기술 현황을 점검하고 전수검사를 진행합니다. 착공에서부터 준공에 이르는 공정과정에서 품질관리(QC)와 사전 서비스(BS)를 통해 품질을 점검하며, 준공 75일 전에는 사전품질 점검(PQC)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전문가 점검인 QC, BS 이후 에 이루어지는 품질점검으로, 주부모니터단 등을 통해 고객의 눈 높이에서 시행되는 품질관리 절차입니다. 또한 준공 한 달 전 자체 품평회인 가가자이 행사를 시행하여 고객 불만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사전 품질점검 프로세스

	착공	D-75	D-35	준공	D+60
QC	공사 단계별 품질점검				
BS	실패사례중심의 현장 교육 및 점검				
PQC		고객 시각의 현장 품질관리 활동 전개			
가가자이				자체 품평회	

고객 개인정보 보호 G4-PR8

DDos, 악성메일 유포 등 다양한 해킹 공격으로 인해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GS건설은 2012년 부터 전사차원의 유관조직 담당 임원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매년 3~4회 실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 하거나 서면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정보, 채용정보, 임직원 · 협력사의 개인정보까지 암호화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접근권한을 관리하여 고객 및 파트너 정보보안을 높은 수 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행정자치부 주관 개인정보관리 실태 점검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 손실 또한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16 DJSI 평가 결과		
고객관계관리		
GS건설		72
건설업 평균/최고점	54	95

고객 커뮤니케이션 강화 G4-HR8

GS건설은 민원 접수 및 처리를 통해 고객의 불만을 빠르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사 VOC(Voice Of Customer) 시스템, 주택고객 민원 시스템(CRM) 등 민원 접수경로를 단순화하여 효율성 높은 소통을 추구하며, 즉시처리를 원칙으로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자체고객만족도 조사를 매분기 실시하여 개선점을 도출·보완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고객민원 접수 현황	단위: 건		
	2014	2015	2016
주택민원 현황	506	532	610
VOC 민원 현황	213	282	498

고객만족 성과 G4-PR5

GS건설은 지속적인 고객만족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고객만족도 향상과 더불어 다양한 대외 전문기관으로부터 성과를 인정받았습 니다. 2016년 고객만족도는 73.0점으로 전년대비 상승하였습니다. GS건설의 대표적인 아파트 브랜드인 ‘자이’는 대한민국 First Brand 아파트부문 대상을 10년 연속 수상하고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대상을 9년 연속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고객만족 지수(GCSI)에서 13년 연속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점		
	2014	2015	2016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72.8	72.9	73.0
* 출처 : GSCI(글로벌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사회공헌 활동

사회공헌 활동은 기업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사업에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수혜자와 주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GS건설은 건설업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중장기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사회공헌 프로그램 분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주요활동

꿈과 희망의 공부방

2011년부터 시행된 ‘꿈과 희망의 공부방’은 건설업의특성이 반영된 GS건설의 대표적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학습 의욕은 높지만 열악한 환경의 어린이의 방을 깨끗하게 꾸미고 학습물품을 제공합니다. 더 나아가 임직원들의 Mentorship 활동 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이후 우수 아동들에게는 장학금 지원을 통해 미래의 꿈을 이루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임직원은 자원조성을 위해 매달 월급에서 급여 우수리를 기부하고, 회사는 동일한 금액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수도권역의 저소득 30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 내 공부방을 사공하여 누적지원이 200가정 에 이르렀습니다.

꿈과 희망의 놀이터

GS건설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 하게 성장하도록 ‘꿈과 희망의 놀이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놀이터의 틀에서 벗어나 텃밭 가꾸기가 가능한 생태놀이 공간 등 친환경적이며 교육적으로 적합한 새로운 개념의 놀이터 를 설치 및 기증합니다. 2016년에는 복지시설 내 생태안전놀이터 시공 및 문화체험활동을 각각 연 4회 실시하여 22곳의 놀이터를 완공하였습니다.

김장김치 봉사활동

GS건설은 매년 저소득층 1,004세대 및 복지시설 대상으로 김치 및 난방유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는 미스코리아 본선 수상자 모임인 미코리더스 회원들과 함께 김장김치 나눔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미스코리아 9명과 GS건설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 90명이 동참 하여 지역아동센터 4곳에 800kg의 김장김치를 전달했으며, 추운 겨울 아이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난방유도 지원하였습니다.

2016 DJSI 평가 결과		
사회공헌활동		
GS건설		98
건설업 평균/최고점	49	98

사회공헌 활동 분석

사회공헌 활동 투입 비용

GS건설은 사회공헌 활동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투입비용을 분 석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업사회공헌 평가 톨인 LBG(London Benchmarking Group)의 모델에 따라 현금 기부, 시간기부, 현물기부, 경영비용 등의 4가지 범주로 분류하였 습니다. 2016년 사회공헌 활동 투입 비용은 전년대비 감소하였 으며, 현금기부가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였습니다. 향후 투입 비용을 바탕으로 사회공헌 활동 성과 및 영향력을 측정할 예정입 니다.

사회공헌 활동 투입비용	단위: 백만원		
	2014	2015	2016
현금기부	5,365	6,141	3,248
시간기부	210	91	97
현물기부	116	0	0
경영비용	605	477	253

사회공헌 활동 형태

GS건설은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구조와 다양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프로그램 의 비용을 자선적 기부, 지역사회 투자, 상업적 이니셔티브로 분류 하였습니다. GS건설은 사회공헌활동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 는 지역사회 투자 및 상업적 이니셔티브 비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형태별 사회공헌 활동 현황	단위: 퍼센트		
	2014	2015	2016
자선적 기부	13.1	3.7	0.1
지역사회 투자	28.4	59.9	88.5
상업적 이니셔티브	58.5	36.3	11.4

GS E&C TRANSPARENT FUNDAMENTALS

GS건설은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투명한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사업의 근간을 튼튼하게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 58 거버넌스
- 60 윤리경영
- 62 리스크관리

거버넌스

기업의 거버넌스는 지속가능한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사항을 경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GS건설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지속가능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사회 산하의 지속가능 경영위원회를 통해 기업의 경제·환경·사회적 이슈를 관리함으로써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체계

거버넌스 운영

GS건설 지속가능경영은 이사회 및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와 경영위원회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회장이며,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전략담당 임원을 산하에 두고 지속가능 경영 TFT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 환경, 사회 분야의 37개 유관부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GS건설 지속가능경영 실행 주체는 본사와 국내외 법인 및 지사, 현장, 자회사 모두가 포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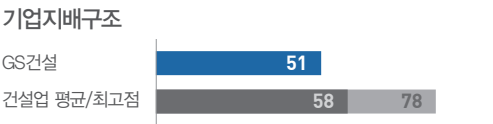
거버넌스 구성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운영

GS건설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점검하고 성과를 이해관계자와 효과적으로 소통하고자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필요 시 지속가능경영 TFT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경영위원회는 전반적인 지속가능경영 연간 활동 내용을 점검하며, 지속가능경영 TFT는 DJSI 및 CDP 평가 등의 CSR 평가에 대응하고, 각 팀의 연간 지속가능경영 활동 내용을 담아 통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6 DJSI 평가 결과



이사회 운영

이사회 구성

GS건설의 이사회 구성 인원은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4인 및 기타 비상무이사 1인의 총 7인입니다.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이루어집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7회의 이사회를 개최하며, 수시로 의결사항이 발생할 경우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뿐만 아니라 경영자문을 통해 이사회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

소위원회 명칭	주요업무
감사위원회	회계 및 주요 업무관리 감독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주주총회에 사외이사 후보추천
지속가능경영 위원회	비전 및 지속가능경영 전략 공유

이사회의 독립성 보장

GS건설은 사외이사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 시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사내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여 이사회 전문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이사 후보자는 이사회 및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으로 확정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현황 및 성과

이사회 운영 및 실적

2016년 GS건설 이사회는 7차의 정기이사회와 6차의 임시이사회로 구성된 총 13차의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사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소 70% 이상 이사회에 출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2015년 경영실적 보고 및 2016년 계획 승인의 건,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등 기업 관리에 필수적인 사안에서부터 투르크메니스탄 해외지사 설립 승인 등 GS건설 전반에 걸친 중요한 사업적 보고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사회 운영 현황		단위: 건, 회, 퍼센트		
	2014	2015	2016	
이사회 심의안건	21	17	23	
이사회 개최 수	11	11	13	
사외이사 평균 참석률	90.9	81.8	98.4	

이사 현황

GS건설은 경영에 대한 전문지식 및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의 필요성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경영학계 권위자 및 건설산업 전문가 등의 다양한 업무경력을 가진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사진은 ESG(비재무적 성과)를 고려한 의사결정으로 중장기 가치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업무에 보다 집중 할 수 있도록 타 이사 겸직의 수를 2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사진 소개

구분	성명	선임일	주요경력
사내이사	허창수	2014.03	GS건설, (주)GS 회장
	임병용	2016.03	GS건설 CEO
비상무이사	허태수	2014.03	GS홀쇼핑 대표이사 부회장
	진병화	2015.03	前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김종은	2015.03	前 LG전자 사장
	주인기	2016.03	前 연세대 경영학부학장
사외이사	권도엽	2016.03	前 제 2대 국토해양부 장관

지배구조 평가

GS건설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으로부터 ESG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일컫는 말로 해당 분야를 평가하고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관리 할 수 있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종합 평가에서 GS건설은 꾸준히 B+~A등급을 취득해왔으며, 지난 2016년에는 지배구조(B+), 환경(A), 사회(B+)로 종합 등급 B+를 획득하였습니다.

지배구조 평가 결과

단위: 등급			
	2014	2015	2016
ESG 종합등급	A	B+	B+
지배구조평가등급	B+	B	B+

평가기관 _한국기업지배구조원

이사회 성과평가 및 보수

GS건설은 매년 이사회 운영 및 위원회 활동에 대한 자가평가를 통해 이사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평가항목은 이사회 역할, 책임과 의무, 구성, 독립성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사회 자가 평가 평균 점수는 지난해와 동일하였습니다. 이사들의 보수는 집행임원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되며, 매년 사업보고서에 이사·감사 전체의 보수현황은 물론 개인별로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에 대해 보수지급금액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임직원의 연간 평균 보수는 CEO 연간 보수의 9.4%로 전년보다 약 3.8% 감소하였습니다.

이사회 자가평가 결과

단위: 점			
	2014	2015	2016
이사회 자가평가	4.5	4.7	4.7

윤리경영

기업의 윤리는 기업의 평판, 직원의 사기, 사업 관계 등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며, 윤리 근간이 흔들리면 기업의 존속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GS건설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통해 고객과 사회가 신뢰하는 기업이 되고자 1994년 윤리 규범을 제정·시행함으로써 윤리경영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윤리교육·홍보, 윤리정책 및 제도 개선, 임직원 직무윤리 감독 등을 통해 건전한 윤리경영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시스템

윤리경영체계 강화

GS건설은 윤리위원회 및 컴플라이언스실의 윤리조직을 정비하고,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내부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2016년 윤리 위원회는 윤리정책과 기준을 심의·의결하고 윤리경영 추진 활동과 모니터링 결과를 점검하였습니다. 컴플라이언스실은 CEO 직할 윤리경영 전담부서로 조직이 실로 승격됨과 동시에 규모가 확대 되었으며 수행프로젝트 점검, 이슈진단 등 감사활동을 시행하였습 니다. 또한 리더의 윤리경영 솔선수범 강화를 위해 직책자 윤리교육 을 신설하여 교육(17개 차수)을 실시하였습니다.

GS건설 윤리경영 체계

목표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통해 고객과 사회가 신뢰하는 기업			
윤리경영 추진방향	교육·홍보	제도	감독	문화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지속적인 윤리 경영 정책 및 제도 개선	임직원의 건전한 직무 윤리 관리·감독	비윤리행위에 대한 信賞必罰 문화정착

CEO 윤리경영 강화 의지

오늘날 윤리경영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근간이며, 기업과 임직원 등 사회의 관계에서 보다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GS건설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CEO의 의지가 핵심적인 요소임을 인지하고, 신년사를 비롯한 공식채널을 통해 매년 임직원들에게 윤리준수를 위한 단호한 의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6년 신년사

부하, 상사, 동료들을 동지애를 갖고 바라본다면, 회사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는 정도경영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수 없을 것. 의도적인 부정행위는 물론이고, 부주의에 의해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또한 용납될 수 없는 일! (2016년 신년사 中)

2016 DJSI 평가 결과

경영행동강령



* 2016년 LNG 저장탱크 담합이슈로 인하여 27년 감점 되었음

윤리경영 추진활동

윤리교육 확대

GS건설의 임직원은 윤리교육을 통해 임직원 개인의 역할과 의무를 숙지하고, 업무 중 격게 되는 윤리적 딜레마상황에서의 올바른 대응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윤리교육은 실시 방법과 유형에 따라 온라인교육, 집합교육, 현장방문 교육으로 나누어 집니다. 온라인 교육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는 필수 이수과정으로 윤리경영 최신 트렌드와 윤리경영 위반 사례에 대한 교육컨텐츠를 제공합니다. 현장방문 교육의 경우 협력사 직원까지 윤리교육을 확대 시행하여 효과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윤리교육 성과

	2014	2015	2016
현장교육 참가자	1,591	1,757	1,860
온라인교육 참가자	6,332	6,263	7,227

청탁금지법 전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관련 법률에 대응하고자 법 준수 가이드라인을 정립 하여 EIP(Enterprise Information Portal) 게시판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GS건설 윤리경영 뉴스레터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식사기준 등 임직원들이 업무상 알아야할 사항을 소개 하였습니다.

윤리위원회 운영

GS건설은 CEO의 윤리적 의사결정을 보좌하고 윤리경영 관련 정책 및 기준 등을 심의·의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CFO가 담당하고 운영위원은 각 사업본부 기획 담당임원과 지원부서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 윤리위원회를 상·하반기 2회 개최하였으며, 윤리경영 사전예방활동과 감사활동에 대해서 논의 하였습니다.

투명한 이해관계자 소통

GS건설은 매년 언론보도를 기반으로 이해관계자들이 관심을 갖는 이슈에 관하여 상세내용을 전달하고, 이를 내부 윤리의식 개선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2016년 담합 이슈 및 개인 윤리위반사항들이 발생하여 개요 및 진행사항에 대해 사업보고서 및 통합보고서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비윤리 행위를 예방 하기 위해 채용시 윤리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무윤리 관리 감독

비윤리행위 신고 채널

GS건설은 비윤리 행위를 인지한 자가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GS건설은 제보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 신문고 및 전화·팩스 등 다양한 신고채널을 확보함으로써 신고 및 제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Compliance실이 즉시 조사를 실시하며, 관련 임직원은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제보조사 결과

	2014	2015	2016
사실	9	19	11
무고	31	25	24
제보	40	44	35

비윤리행위 위반 사례

개인 위반 사례

GS건설은 임직원 및 협력회사의 비윤리 행위에 대한 징계를 규정 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윤리행위 당사자와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인사규정에 따라 시행하며, 협력회사의 비윤리 행위 가 적발된 경우 내부심의 기준에 의거하여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GS건설 임직원과 연루된 비윤리행 위를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은 경우 해당 협력회사를 우수협력 회사로 선정하여도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현장 임차보증금 유용, 특정 회사 선정 특혜 제공 등의 사례가 발생하여 당사자 해고, 상위자 감금 및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개인위반 사례

	2014	2015	2016
징계해고	7	12	7
강직	-	-	1
정직	-	2	4
감금	-	-	16
총합	7	14	28

* 징계해고에는 징계해고, 계약해지, 권고사직, 자진퇴사를 포함하였으며, 개인위반 사례 중 견책, 경고 등은 제외하였음

기업위반 사례

일자	사례	결과
2016.02	삼척발전소 보일러현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50만원 벌금 납부
2016.06	송도4교 전기공사 일괄하도급 계약(종로구청)	영업정지 취소소송 제기하여 2심 재판 진행중
2016.07	LNG 저장탱크 공사 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납부 후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하여 1심 재판 진행 중
2016.10	송도 4교 전기공사 일괄하도급 계약(인천광역시)	과징금 6,700만원 납부
2016.10	수서평택 3-2 안전사고	1심 진행 중

리스크관리

2016 DJSI 평가 결과

리스크 및 위기관리



최근 글로벌 위기로 인해 장기적인 자산운용과 유연한 조직을 위해 효과적인 리스크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건설업에서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증가에 따른 리스크 확대 등 가치창출을 위한 위험성이 상시화 되고 있습니다. GS건설은 회사 내·외부를 둘러싼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감지 및 대응하기 위해서 통합 리스크관리 시스템(Integrated Risk Management System)을 운영하여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 체계

리스크관리 체계 운영

GS건설은 2011년 전사 RM(Risk Management) 조직을 신설하며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RM 조직은 독립적 활동을 통해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사업환경 및 사업추진 리스크로 구분하여 전사 차원의 통합 리스크관리 체계를 운용합니다.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2개 팀(토건사업지원팀, EPC 사업지원팀)이 있으며, 해당 팀들은 사업부문 및 사업본부와 분리되어 사장실 직할 조직하에서 리스크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환경 리스크관리

GS건설은 사업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 요소들에 대한 중도, 발생 가능성, 영향도 등을 분석하여 사업환경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리항목으로는 주요 재무지표, 재무 리스크, 부실 징후관리 등에 관한 글로벌 경기 변동,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불안정, 진출국가 사회·경제적 불안, 정책 및 규제 변화, 물 부족, 환경 오염 및 에너지·연료 위기 등이 있습니다.

사업추진 리스크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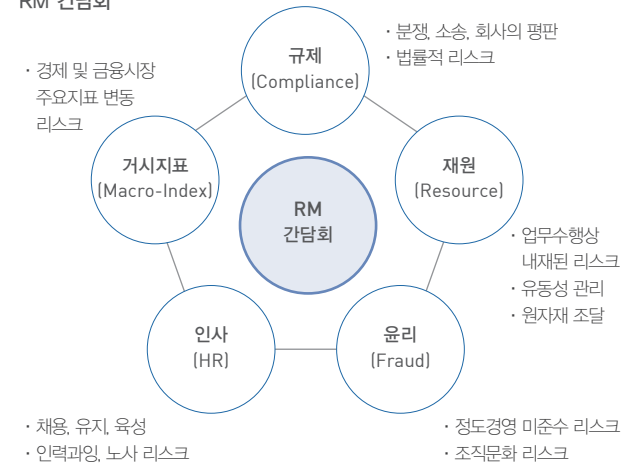
사업 초기 단계부터 준공 및 사후 AS의 전 과정을 통해 사전 예측되거나, 불시에 발생하는 모든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부문 및 스태프 간 유기적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부문 및 전사 사업심의위원회 주관으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재무적 평가 외에도 비재무적 리스크 평가를 사업 진행 단계별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제적 리스크관리 시스템

RM 간담회 운영

리스크관리 활동 강화를 위해 분야별 리스크관리 협업 네트워크인 'RM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야별 RM간담회는 Compliance, Resource, Fraud, HR, Macro-Index 5개 분야로 매주, 매월, 매 분기 별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리스크 이슈 사항을 공유하고 원천관리를 통한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조기 대응하고 있습니다.

RM 간담회



통합 리스크관리 시스템 운영

GS건설은 부문별로 관리하는 리스크를 통합하여 개별 리스크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발생원인을 사전에 감지하여 선제적으로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2012년 전사 통합 리스크관리시스템(IRMS)을 개발하였습니다. 경영실적, 공정원가관리, 채권관리, 재무지표, 재무 Risk, 안전관리, 부실징후관리, 소송·주택CS, 자회사, 주요지표 등 10개 분야 51개 세부항목을 GS건설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적·비재무적 리스크로 분류하고, 매월·매 분기 리스크 현황 파악과 분석을 통해 리스크관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ANNEXES

64	데이터 센터
68	GRI G4/ISO 26000
71	UNGC Advanced Level
72	제3자 검증의견서
74	단체가입현황 및 수상내역

데이터 센터

재무자본 가치창출 G4-17, G4-EC1

제 48(당)기말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47(전)기말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46(전전)기말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목	제 48(당)기말	제 47(전)기말	제 46(전전)기말
자산			
유동자산	9,736,512,654,771	9,549,473,789,179	8,652,947,213,879
현금및현금성자산	2,356,328,903,075	2,428,627,928,534	2,151,187,232,183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4,996,915,667,256	4,748,788,878,719	4,573,821,599,549
재고자산	825,250,796,366	795,522,346,925	613,224,584,568
단기금융자산	353,076,458,144	368,869,286,556	332,670,749,397
기타유동자산	1,204,940,829,930	1,207,665,348,445	982,043,048,182
비유동자산	3,640,076,655,520	3,456,019,198,894	4,441,761,716,468
유형자산	978,072,066,783	1,338,530,756,222	2,456,041,232,354
무형자산	193,648,379,731	144,648,150,988	169,962,416,561
투자부동산	498,208,075,590	91,550,124,181	121,137,518,839
관계회사지분증권	57,583,540,419	36,020,002,177	36,973,209,297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897,494,583,452	887,675,867,283	842,194,042,895
장기금융자산	413,557,493,773	344,103,947,244	347,466,189,539
이연법인세자산	601,512,515,772	613,490,350,799	467,987,106,983
자산총계	13,376,589,310,291	13,005,492,988,073	13,094,708,930,347
부채			
유동부채	7,224,983,499,459	7,139,321,408,218	6,127,182,857,828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2,387,755,424,912	2,066,786,857,664	1,633,207,003,887
단기금융부채	1,823,609,101,727	2,085,439,998,566	1,709,989,267,311
법인세부채	7,706,450,482	8,617,333,856	15,199,746,155
기타유동부채	3,005,912,522,338	2,978,477,218,132	2,768,786,840,475
비유동부채	2,798,440,875,158	2,518,146,655,465	3,385,914,054,659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34,486,819,493	162,563,909,206	136,079,934,317
장기금융부채	1,819,551,295,573	1,619,754,921,948	2,487,229,619,975
순환정급여부채	84,295,110,108	124,149,639,068	93,538,999,238
비유동충당부채	464,295,445,491	402,672,688,826	287,077,677,424
이연법인세부채	50,519,321,671	58,744,641,239	148,853,912,627
기타비유동부채	345,292,882,822	150,260,855,178	233,133,911,078
부채총계	10,023,424,374,617	9,657,468,063,683	9,513,096,912,487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3,278,791,531,781	3,284,298,908,964	3,270,935,844,039
자본금	355,000,000,000	355,000,000,000	355,000,000,000
자본잉여금	610,856,422,454	610,648,899,087	610,634,032,903
기타자본	[87,207,586,208]	[87,207,586,208]	[140,811,144,57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04,053,373,216]	[131,459,629,404]	[87,938,056,407]
이익잉여금	2,504,196,068,751	2,537,317,225,489	2,534,051,012,113
비지배지분	74,373,403,893	63,726,015,426	310,676,173,821
자본총계	3,353,164,935,674	3,348,024,924,390	3,581,612,017,860
부채와 자본총계	13,376,589,310,291	13,005,492,988,073	13,094,708,930,347

환경자본 가치창출¹⁾ G4-EN3, G4-EN5, G4-EN22

항목	단위	2014	2015	2016
자재사용량				
레이콘 사용량	m³	1,707,088	2,858,217	4,246,054
시멘트 사용량	ton	110,039	99,982	185,405
골재 사용량	m³	364,186	329,619	340,199
아스콘 사용량	ton	138,055	230,986	163,726
모래 사용량	m³	51,918	74,428	120,403
철근 사용량	ton	223,093	344,294	470,264
석고보드 사용량	ton	18,442	16,671	27,748
원부자재 사용량 원단위 개선율	퍼센트	19	1	79
순환골재 사용량	m³	70,896	75,532	82,735
용수 사용량				
총계	m³	2,793,820	2,256,554	3,506,709
상수 사용량	m³	1,889,236	1,614,212	2,585,046
지하수 사용량	m³	589,663	332,374	517,883
하천수 사용량	m³	314,921	309,968	403,780
건물 용수 집약도 ²⁾	m³/m²	2.91	1.98	2.69
에너지 사용량				
총계	TJ	4,048	4,504	4,581
LNG(도시가스, 천연가스)	TJ	157	170	145
등유	TJ	11	22	45
경유	TJ	2,228	2,738	2,760
휘발유	TJ	92	184	103
전력	TJ	1,534	1,360	1,502
기타	TJ	26	30	26
건물 에너지 집약도 ³⁾	MWh/m²	0.13	0.13	0.12
폐기물 발생량				
총계	ton	253,217	290,285	293,037
페콘크리트 배출량	ton	171,379	152,617	169,219
페아스콘 배출량	ton	7,021	59,204	15,146
간선펜토석 배출량	ton	10,129	19,988	21,921
혼합간선펜기물 배출량	ton	60,611	49,049	75,172
폐합성수지류 배출량	ton	3,680	9,017	6,242
폐목재 배출량	ton	178	210	969
간선퇴니 배출량	ton	219	200	4,368
폐기물 처리				
재활용	ton	249,140	280,858	281,458
매립	ton	219	200	4,368
소각	ton	3,858	9,227	7,211
폐석면 처리량	ton	76	91	33
폐수 처리량	ton	704,678	498,114	118,661
온실가스 배출량				
총계	tCO2-e	248,276	283,499	286,412
Scope 1(직접배출)	tCO2-e	45,162	74,022	68,597
Scope 2(간접배출)	tCO2-e	74,498	66,056	72,951
Scope 3(기타간접배출)	tCO2-e	128,617	143,421	144,863
건물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⁴⁾	tCO2-e/m²	0.08	0.08	0.08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억원	3.32	2.90	2.63
녹색구매 비용	억원	246.12	319.91	586.65
환경분쟁 건수	건	15	21	26
환경사고 건수	건	7	8	8
환경분쟁 조정비용	억원	18.2	20.8	24.2
녹색환경교육 이수현황	명(누계)	1,477	913	937

1) 매출 기준으로 국내외 현장 및 보유건물의 100%의 데이터를 포함함

2) 건물용수 집약도 = 연간 총 용수 사용량/건물 연면적(본사 포함 11개 건물)

3) 건물 에너지 집약도 = 연간 총 전력 사용량/건물 연면적(본사 포함 11개 건물)

4) 건물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 연간 보유건물 온실가스 배출량/건물 연면적(본사 포함 11개 건물)

산업자본 가치창출

항목	단위	2014	2015	2016
해외 매출 비율	퍼센트	58.1	56.7	44.9
국내 전 건설사 대비 해외 신규수주 비율	퍼센트	9.0	12.0	7.4
신규시장 진출 국가	국	4	3	1
협업체 구성을 통한 원가절감	억원	333.6	730.8	847.0

지식자본 가치창출

항목	단위	2014	2015	2016
그린콘크리트 탄소저감량	tCO ₂ -e	7,029	62,649	48,405
연구개발비용	억원	484	449	484
R&D 투자율	퍼센트	0.51	0.42	0.42
기술본부 이익기여액	억원	544	676	889
기술실용화 성과	억원	108.4	142.8	173.5

인적자본 가치창출 G4-10

항목		단위	2014	2015	2016
임직원 수	총 임직원 수	명	6,657	6,520	6,262
	남성 임직원 수	명	6,204	6,089	5,879
	여성 임직원 수	명	453	431	382
	임직원 정규직 비율	퍼센트	86.1	85.8	85
	임직원 계약직 비율	퍼센트	13.9	13.2	15
	30세 미만 임직원 수	명	850	661	436
	30세 ~ 50세 미만 임직원 수	명	4,943	4,687	4,608
	50세 이상 임직원 수	명	864	1,172	1,218
장애인 고용 비율	퍼센트	0.7	1.1	1.5	
여성 간부 비율	퍼센트	1.4	1.4	0.06	
퇴직율	퍼센트	4.6	3.7	3.0	
임직원 인당 교육시간	시간	86	94	55	
임직원 교육 비용	억원	30	34.8	32.8	
임직원 성과평가 및 경력개발 심사	퍼센트	89.6	91.7	95.0	
임직원 만족도	퍼센트	69.3	62.2	61.5	
노동조합 가입 비율	퍼센트	38.8	39.9	41.8	
출산	출산휴가사용률	퍼센트	4.6	7.7	8.1
	출산휴가사용자	명	21	35	31
	육아휴직사용자	명	23	27	33
	여성육아휴직 사용자	명	19	19	24
	육아휴직 후 복직률	퍼센트	91	97	97

사회·관계자본 가치창출

항목	단위	2014	2015	2016
협력사 현황	개사	914	956	1,106
지역경제 활성화 (국내 지역기반 협력회사 구매 비중)	퍼센트	30.5	33.9	32.5
사회공헌 금액 현황	억원	80	67	36
사회 공헌 활동 참여 임직원 수	명	1,698	274	391
언론노출 횟수	회	11	9	35
복지수혜자수	명	5,147	1,156	1,90
대학생 취업선호도	위	6	5	5
신입사원 유지율	퍼센트	98.6	98.4	100
교육지원 수혜자 수	명	270	246	304
대외 수상 및 평가	회	1	2	1
문화지원 수혜자 수	명	40,140	40,320	40,558
주택고객 민원 접수 건수	건	506	532	610
VOC 시스템 민원 현황	건	213	282	498
자이 브랜드 GCSI 고객만족도 자수 조사 결과	점	72.8	72.9	73.0
주요협회지원비용  G4-16	백만원	2,725	2,356	2,356

기타성과

항목		단위	2014	2015	2016
윤리경영	윤리경영 위반 징계 건수	건	7	14	28
	윤리경영 교육(off-line) 참가 현황	명	1591	1,731	1,860
	윤리경영 교육(on-line) 참가 현황	명	6,332	6,263	7,227

지속가능경영 이니셔티브 G4-15

유엔글로벌콤팩트 UN Global Compact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DJSI	사회책임국제표준 ISO 26000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CDP	사회책임투자 평가 ESG & SRI
-------------------------------	-----------------------	-----------------------	-------------------	------------------------

주요협회 지원사항 G4-16

항목	가입목적	단위	지원금액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 관련제도 개정	백만원	389
전국경제인연합회	국내 건설업 법령제도 개선	백만원	310
한국건설경영협회	국내 건설업 법령제도 개선	백만원	104
서울상공회의소	국내 건설업 법령제도 개선	백만원	91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노동관계법 고용정책 관련	백만원	46

GRI G4/ISO 26000

일반표준공개

측면	지표	지표명	페이지	ISO 26000	검증
전략 및 분석	G4-1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조직, 전략에 관한 최고이사결정자의 성명서	3	4.7/6.2/7.4.2	V
조직 프로필	G4-3	조직 명칭	8	6.3.10/6.4.1/6.4.	V
	G4-4	주력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8, 10, 11, 12, 13	2/6.4.3/6.4.4/6.4	V
	G4-5	본사 위치	ABOUT THIS REPORT	.5/6.8.5/7.8	V
	G4-6	조직이 주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조직의 지속가능성 토픽과 특별히 관련된 국가들의 수와 이름	14		V
	G4-7	조직 소유 형태 및 법적 형태	8		V
	G4-8	시장 영역(지리적 분할, 서비스 분야, 고객유형 및 수혜자 등 포함)	8		V
	G4-9	보고 조직의 규모	8		V
	G4-10	근로자 수(계약별, 고용별, 성별, 지급별)	66		V
	G4-11	단체협약 적용 대상 근로자 비율	47		V
	G4-12	조직의 공급사슬에 대한 설명	6		V
	G4-13	보고기간 동안 발생한 조직의 규모, 구조, 소유, 공급사슬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	15		V
	G4-14	조직의 사전예방 접근법 또는 원칙의 명시 내용	62		V
	G4-15	조직이 가입하였거나 지지하는 외부의 경제, 환경, 사회에 관한 헌장, 원칙, 기타 이니셔티브	67		V
	G4-16	가입한 협회(산업 협회 등)나 국내 또는 국제 후원기관 중 유지중인 멤버십 현황	67, 74		V
중대이슈 및 보고	G4-17	주력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64	5.2/7.3.2/7.3.3/	V
경계 도출	G4-18	보고서 내용과 측면경계 결정 과정	21	7.3.4	V
	G4-19	보고서 내용결정 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중대측면	21		V
	G4-20	조직 내부 중대이슈 별 보고 범위	21		V
	G4-21	조직 외부 중대이슈 별 보고 범위	21		V
	G4-22	이전 보고서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한 수정 및 수정보고 이유	ABOUT THIS REPORT		V
	G4-23	이전 보고기간 이후의 범위 및 측면경계에 발생한 중요한 변화	ABOUT THIS REPORT		V
이해관계자 참여	G4-24	조직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 집단들의 목록	20	5.3	V
	G4-25	조직이 관여할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하고 선정하는 기준	20		V
	G4-26	유형별, 이해관계자 집단별 참여 빈도 등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20		V
	G4-27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토픽 및 관심사, 이에 대한 조직의 대응 방식, 핵심 토픽 및 관심사를 제기한 이해관계자 집단	20		V
보고서 프로필	G4-28	제공한 정보의 보고기간(회계 연도 또는 역년)	ABOUT THIS REPORT	7.5.3/7.6.2	V
	G4-29	가장 최근 보고서 발간 일자(존재하는 경우)	ABOUT THIS REPORT		V
	G4-30	보고 주기(매년, 격년 등)	ABOUT THIS REPORT		V
	G4-31	보고서 또는 그 내용에 대한 문의 시의 연락처	ABOUT THIS REPORT		V
	G4-32	조직이 선택한 '부합' 방법 보고	ABOUT THIS REPORT		V
	G4-33	보고서 외부 검증에 대한 조직의 정책 및 현 관행	ABOUT THIS REPORT		V
거버넌스	G4-34	최고거버넌스 기구의 위원회를 포함한 조직의 거버넌스 구조, 경제, 환경,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의사결정 책임이 있는 위원회	58	6.2/7.4.3/7.7.5	V
윤리성 및 청렴성	G4-56	조직의 가치, 원칙, 표준 그리고 행동강령, 윤리강령 등의 행동규범	60	4.4/6.6.3	V

특정표준공개

경제	지표	지표명	페이지	ISO 26000	검증
경제성과	DMA	경영접근방식	28	6.8.1-6.8.2/6.8.3/	V
	G4-EC1	직접적인 경제가치 발생과 분배(EVG&D) 보고	9, 64	6.8.7/6.8.9	V
시장지위	DMA	경영접근방식	42,46	6.3.7/6.3.10/	V
	G4-EC5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최저 임금과 비교한 성별 기본 초임	46	6.4.3/6.4.4/	V
		임금 비율		6.8.1-6.8.2	
간접경제성과	DMA	경영접근방식	33		V
	G4-EC7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자원 서비스의 개발 및 영향	33	6.3.9/6.8.1-6.8.2/	V
				6.8.7/6.8.9	
환경	지표	지표명	페이지	ISO 26000	검증
에너지	DMA	경영접근방식	38, 41		V
	G4-EN3	조직 내 에너지소비	65	6.5.4	V
	G4-EN5	에너지 집약도	65		V
폐수 및 폐기물	DMA	경영접근방식	37, 40		V
관리	G4-EN22	수질 및 도착지별 총 방류량	65	6.5.3/6.5.4	V
제품 및 서비스	DMA	경영접근방식	34, 36	6.5.3/6.5.4/6.5.5/	V
	G4-EN27	제품 및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완화 정도	36	6.7.5	V
컴플라이언스	DMA	경영접근방식	38, 40	4.6	V
	G4-EN29	환경법 및 규정 위반으로 부과된 중요한 벌금의 액수 및 비금전적 제재조치의 수	40		V
사회_노동관행 및 양질의 일자리	지표	지표명	페이지	ISO 26000	검증
노사관계	DMA	경영접근방식	42, 47	6.4.3/6.4.5	V
	G4-LA4	경영상 변동에 관한 최소 통지기간(단체협약상의 명시 여부 포함)	47		V
산업안전보건	DMA	경영접근방식	42, 48, 49	6.4.6	V
	G4-LA6	부상 유형, 부상 발생률, 업무상 질병 발생률, 휴직일수 비율, 결근률, 업무 관련 사망자 수(지역별, 성별)	49	6.4.6/6.8.8	V
사회_인권	지표	지표명	페이지	ISO 26000	검증
차별금지	DMA	경영접근방식	42, 45	6.3.6/6.3.7/	V
	G4-HR3	차별 사건의 수와 이에 대한 사정조치	46	6.3.10/6.4.3	V
아동노동	DMA	경영접근방식	42, 45	6.3.3/6.3.4/6.3.5/	V
	G4-HR5	아동노동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파악되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와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	46	6.3.7/6.3.10/	V
				6.6.6/6.8.4	
강제노동	DMA	경영접근방식	42, 45	6.3.3/6.3.4/6.3.5/	V
	G4-HR6	강제노동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파악되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폐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	46	6.3.10/6.6.6	V
원주민권리	DMA	경영접근방식	50, 54		V
	G4-HR8	원주민 권리 침해 사건의 수와 이에 대한 조치	54	6.3.4/6.3.6/6.3.7/	V
				6.3.8/6.6.7/6.8.3	
인권 고충처리	DMA	경영접근방식	42, 46		V
제도 운영	G4-HR12	공식 고충처리제도에 의해 접수, 발견, 해결된 인권고충 건수	46	6.3.6	V



UNGC Advanced Level

	구분	원칙	페이지	GRI 지표
1	거버넌스	글로벌컴팩트 이행의 전략적인 측면에 대한 최고경영층 및 이사회수준의 논의를 서술합니다.	3	G4-1
2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과 지배구조 시스템에 대해 설명합니다.	58	G4-34
3		모든 중요한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해 서술합니다.	20, 21	G4-24~27
4	UN 목표 및 이슈	폭넓은 UN 목표와 이슈를 지지하기 위한 활동을 서술합니다.	67, 74	G4-15,16
5	인권	인권 분야에서 강력한 추진의지, 전략 또는 정책을 서술합니다.	67, 74	G4-15,16
6		인권원칙을 통합하기 위한 효과적인 경영시스템을 서술합니다.		
7		인권원칙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메커니즘을 서술합니다.	46	G4-HR12
8		인권에 대한 표준화된 성과지표(GRI포함)를 적용합니다.	47	G4-11
9	노동	노동분야에서 강력한 추진의지, 전략 또는 정책을 서술합니다.	47	G4-LA4
10		노동원칙을 통합하기 위한 효과적인 경영시스템을 서술합니다.	46	G4-LA5
11		노동원칙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메커니즘을 서술합니다.	46	
12		노동에 대한 표준화된 성과지표(GRI 포함)를 적용합니다.	66, 68, 49	G4-10, G4-LA6
13	환경	환경경영 분야에서 강력한 추진의지, 전략 또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3	G4-1
14		환경원칙을 통합하기 위한 효과적인 경영시스템을 서술합니다.	40	
15		환경경영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메커니즘을 서술합니다.	40	
16		환경경영에 대한 표준화된 성과지표를 적용합니다.	38, 65	G4-EN3, 5, 8, 15~18, 22, 23, 27, 29
17	반부패	반부패 분야에서 강력한 추진의지, 전략 또는 정책을 서술합니다.	60	G4-56
18		반부패 원칙을 통합하기 위한 효과적인 경영시스템을 서술합니다.	60, 61	G4-S04
19		반부패의 통합을 위한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메커니즘을 서술합니다.	60, 61	G4-S04
20		반부패에 대한 표준화된 성과지표를 적용합니다.	60, 61	G4-S07
21	전략, 거버넌스 및 참여	가치사슬 내에서 글로벌컴팩트원칙 이행에 대해 설명합니다.	9, 19, 50	G4-12
22	검증 및 투명성	기업의 프로필과 운영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15	G4-3~16
23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공시를 포함합니다.	ABOUT THIS REPORT	G4-28~33

사회_사회					
측면	지표	지표명	페이지	ISO 26000	검증
반부패	DMA	경영접근방식	60		V
	G4-S04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공지와 훈련	60	6.6.1-6.6.2/6.6.3	V
경쟁저해행위	DMA	경영접근방식	60		V
	G4-S07	경쟁저해행위, 독과점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의 수와 그 결과	61	6.6.1-6.6.2/6.6.5/6.6.7	V
컴플라이언스	DMA	경영접근방식	60		V
	G4-S08	법률 및 규정 위반에 대한 중요한 벌금의 액수와 비금전적 제재의 횟수	61	4.6	V
사회_제품책임					
고객안전보건	DMA	경영접근방식	50, 54		V
	G4-PR1	개선을 위해 안전보건 영향을 평가한 주요 제품 및 서비스군의 비율	54	6.7.1-6.7.2/6.7.4/6.7.5/6.8.8	V
제품 및 서비스	DMA	경영접근방식	50, 54		V
라벨링	G4-PR5	고객 만족도 조사결과	54	6.7.1-6.7.2/6.7.6	V
고객	DMA	경영접근방식	50, 54		V
개인정보보호	G4-PR8	고객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정보 분실 사실이 입증된 불만 건수	54	6.7.1-6.7.2/6.7.7	V
컴플라이언스	DMA	경영접근방식	60		V
	G4-PR9	제품 및 서비스공급 및 사용에 관한 법규 위반에 대한 중요한 벌금의 액수	61	4.6/6.7.1-6.7.2/6.7.6	V

제3자 검증의견서

GS건설 경영진 및 이해관계자 귀중

더씨에스알(THE CSR, 이하 “검증인”)은 GS건설로부터 2016 GS E&C Integrated Report(이하 “보고서”)에 대한 독립검증을 요청 받았습니다. 검증인은 GS건설이 작성하여 보고서에 공시한 비재무성과에 대해 검증기준에 근거하여 검증의견을 제시합니다.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정보에 대한 책임은 GS건설에 있습니다. 이 검증의견서는 GS건설의 경영진 및 이해관계자에게 제공되며 타 기관 또는 신뢰성 제고 이외의 다른 목적과 용도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검증기준

검증인은 AA1000AS(2008) 검증표준에 따라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GRI G4 가이드라인의 보고내용과 품질결정에 대한 원칙적용 여부 와 정보산출 과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통합보고서 발간기준이 IIRC IR 프레임워크에 따른 보고서 체계를 점검하였습니다.

- AA1000AS(2008)의 포괄성(Inclusivity), 중요성(Materiality), 대응성(Responsiveness) 원칙
- GRI G4 가이드라인의 보고내용과 품질 결정에 대한 원칙 및 핵심적 부합방법에 따른 보고 지표 수준 확인
- IIRC IR Framework 적용의 적절성
- 보고서 공개정보 산출방식의 타당성

검증수준

검증수준은 AA1000AS(2008)의 원칙적용을 중심으로 한 일반수준 검증(Moderate Assurance Level)을 실시하였습니다. 데이터 샘플링과 인터뷰를 제한적 수준(Limited Level)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검증과정에서 수행한 주요 활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고이슈 선정을 위한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의 합리성 점검
- 보고서 공시정보와 감사를 받은 공시데이터와의 일치 여부
-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 점검
- 데이터 산출을 위한 관리시스템 및 프로세스 검토

검증한계

검증인은 정보산출의 적합성을 기준으로 보고 내용의 신뢰수준을 확보하였으나, 100%의 신뢰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재무성과는 회계감사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및 공시자료와 일관성을 확인하였으며, 환경성과의 경우 전문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확인하였습니다.

검증독립성

검증인은 GS건설이 보고서 검증결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맺고 있지 않습니다. 검증기관으로서 윤리준수와 독립적 지위가 확보된 가운데 검증의견을 제시합니다.

GRI G4 적용수준 검토

검증인은 보고서 발간 국제가이드라인 GRI G4 핵심적 부합방법에 따른 부합여부를 검토하였고, 경영접근방식(DMA), 일반표준공시 보고지표, 특정표준공시 21개 측면에서 최소 1건 이상의 지표보고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증절차를 통해 확인된 주요 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범주	경제	환경	사회
측면	경제성과_EC1	에너지_EN3, EN5	노사관계_LA4
	시장지위_EC5	폐수 및 폐기물 관리_EN22	산업안전보건_LA6
	간접경제효과_EC7	제품 및 서비스_EN27	차별금지_HR3
		컴플라이언스_EN29	아동노동_HR5
			강제노동_HR6
			원주민권리_HR8
			인권 고충처리제도_HR12
			반부패_SO4
			경쟁저해 행위_SO7
			컴플라이언스_SO8
			고객안전보건_PR1
			제품 및 서비스 라벨링_PR5
			고객개인정보보호_PR8
			컴플라이언스_PR9

검증의견

검증인은 보고서에 GS건설의 경제, 환경, 사회성과가 6대 자본에 따라 적절하게 기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AA1000AS(2008) 검증표준과 국제가이드라인의 원칙 준수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검증의견을 제시합니다.

**포괄성
Inclusiveness** GS건설은 가치창출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를 하는가?
검증인은 GS건설이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이해관계자 가치창출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실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 참여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된 이해관계자 그룹은 없습니다.

**중요성
Materiality** GS건설은 중요한 지속가능성 이슈들을 보고하고 있는가?
검증인은 GS건설이 지속가능성 이슈를 도출하는 절차를 확인하였으며,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도출된 중요이슈들이 누락 없이 보고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검증인은 중요성 평가 절차를 적용하는데 있어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응성
Responsiveness** GS건설은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합리적으로 대응하였는가?
검증인은 GS건설의 이해관계자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은 보고서에 적절하게 기술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경영개선권고

- GS건설은 6대 자본 별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여 보고서 발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를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GS건설 비즈니스 환경에 영향을 주는 6대 자본별 대응전략을 체계화하고 기대사항에 대한 약속, 단계별 목표 및 추진경과를 명확히 하여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을 권고합니다.
- DJSI 대응을 통한 광범위한 성과 데이터를 지속가능성 KPI와 연계하여 지속가능성과 재무에 대한 통합적 관점의 중장기 가치 창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권고합니다.
- GS건설의 전략과 자본의 흐름에 따른 성과를 가치창출 프로세스 형태로 보고한 점이 우수합니다. 향후 경제, 환경, 사회적 임팩트평가를 체계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검증팀

GS건설로부터 검증을 의뢰 받은 더씨에스알은 2013년 12월 설립된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전문가입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영국, 독일 등 CSR 연구성과를 보유한 다국적 CSR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검증팀은 충분한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수준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습니다.

2017년 6월 30일

THE CSR Assurance Committee

더씨에스알 검증위원회



검증위원
Tawuya Katso, Ph.D

검증위원장
정 세 우

단체가입현황 및 수상내역

단체가입현황 G4-16

사업부분	협회 및 단체명
플랜트	한국플랜트엔지니어링협의회, CII(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e), 한-카타르 친선협회, (사)한국무역협회, 해외건설협회, 한국 플랜트산업협회, 한-이집트경제협력위원회, 한-오만 친선협회, Korea PDS, AACE International, Gasification Technology협회, IRCA(International Register of Certificated Auditors), 사단법인한국가스연맹, 화형영체자순(북경) 유한공사
발전·환경·전력	대한상하수도학회, 대한환경공학회, 한국막학회, 한국물환경학회, 한국수처리학회, 한국연소학회, 한국열환경공학회, 유기성자원학회,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유체기계공업학회, 한국섬새환경학회, 한국소각기술협의회,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화학공학회, 대기환경학회,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대한환경공학회 대구경북지회, 영남대 부설 환경문제 연구소,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기술협회, 대한전기협회 KEPIC, 한국프로젝트경영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 한국지역방난방협회, 한국원자력산업회, 한국원자력학회,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한국전기철도기술협력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도시철도협회
토목	대한교통학회, 한국도시철도협회, 한국수자원학회, 한국대담회, 한국토목섬유학회, 한국도로학회, 한국도로교통협회, 한국해양해양공학회, 한국항만협회, 한국연안방재학회, 한국관개배수위원회, 한국철도협회, 한국철도학회, 한국철도건설협회, 한국철도시설협회, 대한 토목학회, 한국지반공학회, 한국임반공학회,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한국강구조학회, 한국콘크리트학회
건축	대한전기학회,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건축시공학회, 한국군납조합, 대한설비공학회,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 설비기술협회, 한국종합건설기계설비협의회, 한국지열에너지학회, 한국초고층도시건축연합, 한국공기청정협회, 한국건축친환경설비 학회, (사)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한국BIM학회,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한국조경학회, 한국주택협회, 한국리모델링협회
기술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건설신기술협회, 빌딩스마트협회, 한국지반환경공학회, 한국방재학회, 대한건축 학회,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한국도로학회, 한국지진공학회, 응용생태공학회, 한국풍력에너지학회, 한국전산구조공학회
경영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한국건설경영협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건설업체 인사관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 국IR서비스, 서울변리사협회, 미국변호사협회, 한국공정경영연합회, KOSHA협의회, 건설안전협의회, 건설안전실무자협의회, 안전보건 교육발전협의회, 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회, 한국건설품질협회, 건설환경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문건설협회, 한국신 재생에너지협회, 한국소방협회, 시설물유지협회, 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원격훈련기관 중구 협의체, 전국 온라인 교육기관 협의체, 한국산업교육학회, 한국조직개발경영학회

수상내역

분야	수상내역
경제	• 2015년 준공 올해의 토목구조물 공모전(대한토목학회) – 금상 • 2016 착한브랜드대상(동아일보) – 아파트부문 수상 • 국토도시디자인대전(파이낸셜뉴스) – 국토부장관상 • Building SMART International Awards(Building SMART) – Safety and Risk Category 분야 Honourable Mention • 2016 머니 IR 대상(머니투데이) – 건설부문 최우수상 • ITA Tunnelling Awards 2016(ITA(세계터널지하공간 학회)) – Tunnelling Project 1등 • 제12회 대한민국 토목건축기술대상(매일경제) – 토목부문 대상
환경	• HSE Excellence Award 2016(ASSE Kuwait Chapter) – Project HSE management 부분Excellence Award(은상) / 환경 관리 부분Excellence Award(은상) • 2016 대한민국 주거서비스대상(머니투데이) – 친환경부문 최우수상 • 친환경건설산업대상(중앙일보) – 아파트부문 수상 • 제9회 그린하우징어워드(한국일보) – 그린커뮤니티 수상 • 11 회 대한민국 생태환경건축상(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 기술부문 대상 • 2016 그린건설대상(서울신문) – 국토부장관상
사회	• 2016 DJSI Asia Pacific 7년 연속 편입 • 제12회 건설협력증진대상(건설경제) – 건단연회장 표창 • 포브스 사회공헌대상(대한상공회의소 중앙일보) – 사회공헌대상

GS E&C INTEGRATED REPORT 2016

창조적 열정으로 세상의 가치를 건설하여 신뢰받는
BEST PARTNER & FIRST COMPANY

GS건설의 비전은 창의와 열정을 통해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치를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고객과 임직원, 투자자와 인류사회로부터 신뢰받는 파트너, Global 1등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GS건설은 이해관계자와 함께 기업과 사회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이며,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더욱 밝은 미래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I 발 행 인 I 임병용

I 발 행 처 I GS건설

I 발 행 일 I 2017. 07



03159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그랑서울

Tel 02-2154-1114

www.gsenc.com